

2018. 04

사회적경제 기반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례집



충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CONTENTS

사회적경제 기반
국제개발협력사업 사례집



I 사회적경제란?

1. 사회적경제의 의미
2. 한국 사회적경제의 등장배경
3. 사회적경제의 목표

007

II 국제개발협력과 사회적경제

1. 국제개발협력
2. 국제개발협력과 사회적경제의 만남

017

III 국내기관의 사회적경제기반 국제개발협력사업 실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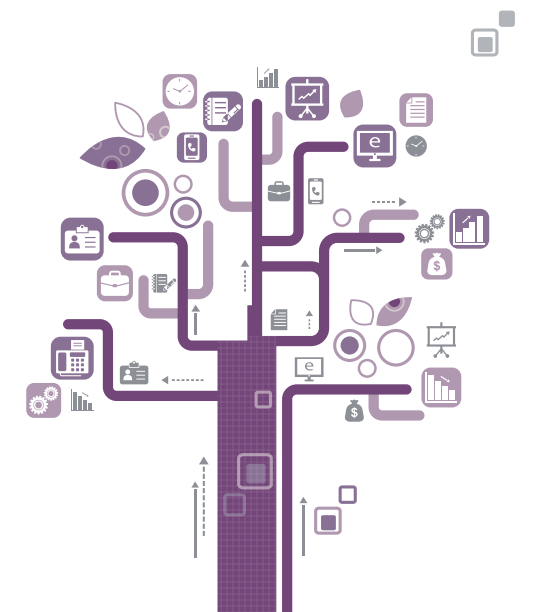
021

IV 해외기관의 사회적경제기반 국제개발협력 실천 사례

085

※ 참고문헌

105



I 사회적경제란?



1. 사회적경제의 의미
2. 사회적경제의 목표
3. 사회적경제의 실천
4. 사회적경제의 동향





제 1장 사회적경제란?

1. 사회적경제의 의미

사회적경제(social economy)는 외국에서도 현재까지 개념정의에 관한 논문이 상당수 이루어질 만큼 매우 다양하다. 사실 사회적경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에 대해서는 1990 년대에 들어서야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정의하는데 있어 크게 시장과 공공부문의 중간영역 즉,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이해하는 접근과 제3 부문이 사회적경제라는 접근이 있다. 시장과 공공부문의 중간영역으로서 사회적경제를 이해하는 경우는 이익추구 관점에서 사회적경제를 정의하는 것이다. 즉 이익추구 영역을 시장으로, 공익추구 영역을 국가영역으로 구분하면서 공익을 추구하면서 수익을 발생시켜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조직들이 속한 영역이 사회적경제라는 주장이다. 이렇게 사회적경제를 정의하면 직관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들이 포함되고 배제되는지에 관해 논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예컨대 비영리조직은 사익과 공익의 스펙트럼에서 공익에 분류되는데,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적 예인 사회적기업에는 비영리조직이 포함된다.

드푸르니와 드벨테르는 사회적경제를 정의하는 세 가지 접근법을 제시하였는데, 이 기준은 오늘날 사회적경제 개념정의 논의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다.

(1) 사회적경제를 정의하는 세 가지 접근법 (by Defourny & Develter)

① 법/제도적 접근(legal and institutional approach)

법/제도적 접근은 사회적경제를 정의하는 가장 전통적인 접근으로 프랑스의 19세기 협동조합 활동과 이에 대한 법적 인정에서부터 논의를 시작한다. 이처럼 프랑스에서 사회적경제를 논의하는 접근법은 20세기 이후 유럽각국으로 확산되었고, 사회적경제의 제도화는 협동조합 기업(co-operative enterprise), 공제조합(mutual benefit societies), 협회(associations)의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② 규범적 접근(normative approach)

사회적경제에 관한 규범적 접근은 제3부문이 추구하는 가치, 원칙과 제도적 접근을 결합한 것이다. 이 접근법에서는 사용하는 명칭이 협동조합, 공제조합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협동조합이 아닌 조직도 존재하고, 공제조합이라 하더라도 국가에 따라서는 제도에 의해 이익 추구 활동에 집중하거나 준공공조직(para-publicagency)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협동조합, 공제조합 등의 특별한 조직형태를 사회적경제와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는다. 이 접근법에서는 사회적경제의 목적이 자신의 소속을 넘어서



다른 공동체(wider community)에 까지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서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이익추구보다 구성원 또는 공동체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율적으로 경영하며, 민주적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수익배분보다 사람과 일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하는 조직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기업, 협동조합, 협회, 상호공제조합 모두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규범적 접근에 의해 사회적경제를 정의하면 국가마다 상이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③ 비영리 부문(non-profit sector)

NPO를 포함한 비영리 부문으로서 접근하는 방법이다. 사회적경제를 비영리 부문으로 접근하는 것은 미국을 중심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유럽에서 사회적경제는 협동조합의 개념 및 원리에 상당히 의존해 왔는데, 미국에서 나타난 비영리 부문의 수익추구 활동은 유럽에서 논의되던 기존의 사회적경제 개념의 확장을 가져올 정도로 최근의 개념이다.

(2) 사회적경제조직의 요건

사회적경제의 개념과 정의에 대해서는 국내·외 학자와 기관들의 주장이 조금씩 상이하지만, 사회적경제조직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에 대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기관별 사회적경제조직의 요건을 살펴보자.

① OECD(1999)

사회적경제조직을 기업적 방식으로 조직되는 일반 활동 및 공익활동을 수행하면서, 주요 목적은 이윤극대화가 아니라, 특정한 경제 및 사회적인 목적, 재화나 용역의 생산 혹은 사회적 배제 및 실업 문제에 대해 혁신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조직으로 정의함.

② EMES Network

1996년 EU의 재정지원 하에 유럽 15개국의 연구자가 참여한 EMES Network에서는 지속적인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활동을 유지, 활동의 지속 및 종료에 대한 독립적 의사결정권을 의미하는 높은 자율성의 확보, 조직의 재정적 생존가능성이 구성원의 노력에 달려 있음을 잘 아는 높은 경제적 리스크 의식의 보유, 최소한의 유급 직원 보유, 공동체의 이익 추구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의 보유, 지역사회 소수자 및 약자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하는 집합적 특성(collective dimension)의 견지, 자본의 소유 정도와 분리된 의사결정 권한의 보유, 기업 활동에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광범위한 참여의 확보, 이윤배분에 대한 제한 및 이윤극대화에 대한 금지



등이 확실하게 관찰될 수 있는 조직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보았다.

③ Social Economy Europe

사람과 사회적 목적이 자본보다 우선, 구성원 자격의 자발성 개방성, (조직)구성원에 의한 민주적 통제, 구성원 및 이용자의 이익과 기타 보편적 이익 등의 고른 안배, 연대와 책임의 원칙의 준수·적용,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성과 독립성 유지, 잉여의 대부분이 지속가능한 발전 및 구성원의 이익과 보편적 이익을 위해 사용 되는 조직 등을 사회적경제조직으로 정의함.

④ EU

공공섹터에 속하거나 통제를 받지 않는 사적 조직, 법적 근거 등을 가진 형식적 조직, 설립과 해산/조직 구조나 활동 내용의 결정 등에 관해서 완전한 자기결정권을 가진 조직, 가입과 탈퇴의 자유 보장, 수익이나 잉여금을 분배할 경우 각 조직 구성원의 출자금이나 회비의 차이가 아니라 활동 참여나 이용정도를 기준으로 함, 자본의 축적이 아닌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스스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인적 결합체, 일부 자선단체를 제외하고 주로 기층 수준의 조직 구성원에 의한 '1인 1표'의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로 운영되는 조직 등으로 정의하였다

⑤ Defour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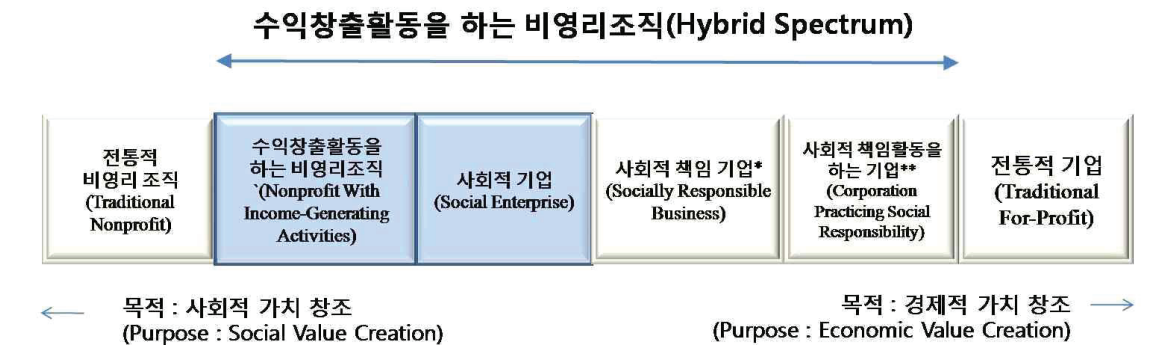
이윤보다는 구성원이나 지역 사회의 이익을 위한 활동이 우선적 목표, 독립적 운영,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자본보다는 인간과 노동을 먼저 고려한 소득 배분이 이루어지는 조직 등으로 정의함.

⑥ 시장성의 정도에 따라

수익추구의 정도에 따라 조직을 분류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경제조직을 분류하는데 가장 많이 인용된 앨터(Kim Alter, 2004)의 분류에 의하면, 조직의 목적성을 기준으로 전통적 비영리조직과 전통적기업을 양축으로 다음의 그림과 같이 세부조직형태를 제시한다. 그런데 앨터(Alter, 2004)는 목적성을 기준으로 분류하였으나 실제 양축은 시장성을 기준으로 설정된 것이며, 중간에 위치한 조직들은 수익활동을 어느 정도 하는가에 따라 위치 지어진 것이다. 하지만 시장성을 기준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을 분류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시장성보다 공익성을 우선으로 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것을 간과하는 것이다. 사회적경제조직은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결성되고 자율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조직의 생존을 위해서도 수익추구 활동을 중요시 한다. 여기서 수익이 창출되는 정도는 해당 조직이 소유한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성에 기인하는 것이지, 조직의 추구목적이 수익창출이기 때문은 아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조직을 유



형화 할때는 실질적으로 조직의 시장성과 목적성, 수혜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적경제의 목표

1) 구성원이나 공공을 위한 목표

“구성원이나 공공을 위한 목표”는 궁극적 목적이 봉사인 점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조직으로서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해석, 즉 기업의 생존과 사회적 목적간의 갈등에 있어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한다. 사회적경제의 활동은 구성원, 또는 보다 넓은 지역사회에 제공되는 봉사이지 투자된 자본에 대한 재정적 보상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이익은 이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지 활동의 주요 동기가 아니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2) 경영의 자율성

“경영의 자율성”은 사회적경제를 공공부문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 과 구분하는 주요 요소이다. 공공부문이 공공을 위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조직이 직접 운영하는 경제활동은 자율성을 가지지 못하고 있다. 반면 사회적경제조직은 민간의 자율성과 역동성이 사업의 동력으로 작용한다.

3) 민주적인 의사결정과정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은 영리회사의 의사결정 방식인 1주 1표가 아니라 자본의 소유에 근거하지 않는 1인 1표로 실현되고 있다. 원칙은 무엇보다도 구성원의 자격 및 의사결정에의 참여가 일반기업에서처럼 보유한 자본의 정도에 따른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



4) 수익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을 중시

“수익배분에 있어서 자본보다 사람과 노동을 중시”조항은 사회적경제 기업 내에서 다양한 형태로 드러난다. 예컨대 자본에 대한 보상의 제한, 배당금의 형태로 노동자나 이용자구성원간의 잉여 배당, 활동의 발전을 위한 수익금 적립, 사회적 목적을 위한 수익금 사용 등이다. 즉, 자본의 크기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영리회사와는 다른 사람과 노동을 중시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3. 사회적경제의 실천

1)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

(1) NGO(비정부기구)

민간인이나 민간단체로 이루어진 국제기관으로서 보통 국제기구, 국제기관이라고 하면 국제조약에 의해 만들어진 정부기관(IGO)을 말한다. 비정부기구(NGO)는 이에 대비되는 말로서 국제적인 비영리 민간조직에 대해 유엔에서 최초로 사용하였다. 최근 들어 국내 민간단체, 시민조직도 NGO의 범주에 속하게 되었다. NGO는 널리 환경보호, 개발원조, 인구, 거주지, 여성, 기아 구제, 인권, 장애인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활동하며, 유엔 차원에서 세계회의가 열릴 때 민간활동의 경험 및 주장을 회의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각 조직은 각자가 맡은 테마에 따라 "환경 NGO", "인권 NGO", "개발 NGO" 등으로 불린다. 나이로비에 본부를 둔 "환경연락센터(ELC)"가 유엔환경계획(UNEP)으로부터 재정을 원조 받아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단체만도 약 6천 개에 이른다. 국제적인 "환경 NGO"는 선진국이나 개도국을 구분하지 않고 민간 차원의 환경보호활동에 관련하며 커다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엔 및 유럽, 미국의 정부 등도 NGO와 제휴하고 있다. 각국 NGO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의 "지구헌장" 등에 각각 제안을 제출한 바 있다

(2)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는 원래 사회의 저소득층이나 노숙자, 그리고 삶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직업훈련의 기회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체 설립을 모색중이던 미국의 비영리 활동가들에 의해 사용되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 목적을 가진 기업’으로 인식되면서 비영리기업(nonprofit enterprise), 지역사회 벤처(community wealth venture), 사회적 목적 기업(social purpose enterprise)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고 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의는 아직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는 측면과 ‘비영리 기관 운영을 위한 재정창출’이라는 두 가지 메커니즘을 모두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영리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수익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환원하는 기업으로 정의할 수 있다.

‘영리적 이윤 창출’과 ‘사회적 사명 수행’은 ‘재정적 수익’이라는 경제적 가치와 함께



‘사회적 목적 달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그러나 이 둘의 관계는 명확하다. 영리적인 수익활동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목적을 위한 자원 창출의 수단일 뿐이다. 즉 사회적 기업은 이윤창출과 효율성이라는 영리적 활동을 추구하지만 기업주나 주주의 이익을 최대화하려는 목적을 가진 일반 기업과는 달리 ‘사회적 목적’을 위해 이윤을 재투자하는 기업이다.

(3) 협동조합

협동조합기본법 제 2조 1호에 따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조직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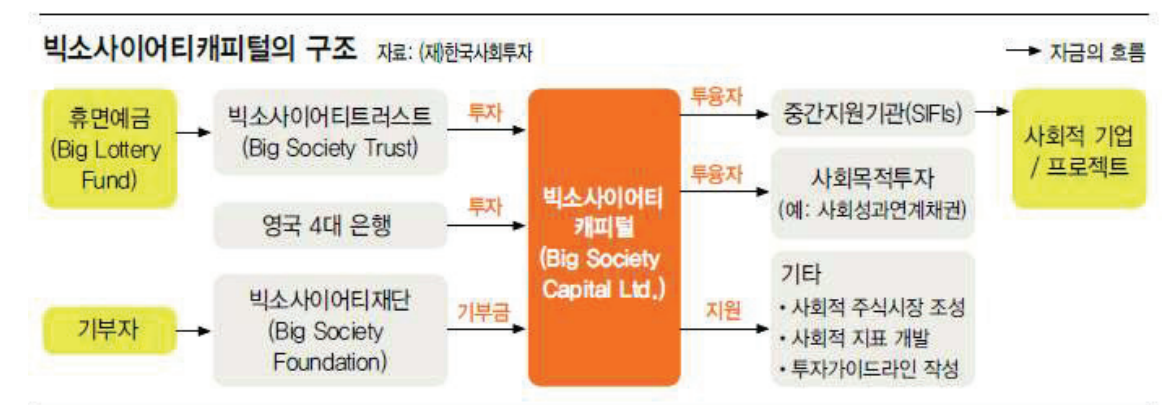
4. 사회적경제의 동향

(1) 마이크로파이낸스

Social Financing 확산

사회경제영역의 재원조달은 다양하게 정부지원, 사업자금, 기부 등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최근의 가장 큰 흐름은 사회적 금융(social financing)을 조성하는 것이다. 사회적 금융이란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돈을 투·융자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꾀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현대적 의미의 사회적 금융은 마이크로파이낸스, 지역개발 금융, 사회목적투자, 풀뿌리 관계금융 등이 대표적이나 마이크로파이낸스가 가장 성공적으로 운영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지역개발 금융을 잘 발달시킨 곳은 미국이며, 영국은 현재 70 여개의 지역금융기관이 만들어져 빈곤계층이나 지역 소기업,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관계금융 혹은 조합형 금융의 흐름은 협동조합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며, 협동조합은 자본조달 문제를 이윤동기가 아닌 상호주의와 호혜의 원리에 따라 해결하고 있다. 영국은 2012년 4월에 사회투자기금의 하나인 ‘Big Society Capital’을 출범 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큰 사회(Big Society)’는 ‘작은 정부’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문제를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가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공공과 민간이 함께 큰 사회를 이루자는 주장이다. 영국에서는 사회투자기금에 대한 논의가 2000년 정부 주도로 ‘사회투자시장 조성’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면서 시작되었고, 실제 기금의 출발은 2008년 ‘휴면예금관련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 빅소사이어티캐피탈의 구조



유럽연합은 50조원 규모의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여 유럽 각국과 매칭펀드로 연간 120조원 규모를 지원하고 있고, 이렇게 지원되는 자금은 실업문 제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에 활용되고 있다. 또한 프랑스는 국영금융기관(CDC)을 조성하여 사회적경제와 지역개발 지원, 협동조합형 사회적기업 지원을 하고있고 이밖에도



France Active, France Initiative 등 마이크로 파이낸스 펀드 등 다양한 사회투자관련 금융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다.

II 국제개발협력과 사회적경제



1. 국제개발협력
2. 국제개발협력과 사회적경제의 만남





1. 국제개발협력이란?

국제 원조(International Aid)나 해외원조(Overseas Aid)라는 단어는 오랫동안 ‘선진국이 가난한 개발도상국을 돕는 활동’을 설명하는 단어였다. 예를 들어 선진국에서 국민이 낸 세금을 이용해 가난한 국가를 지원하는 공적개발원조(ODA,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가 원조의 대표적 형태였다. 아울러 선진국 시민들이 기부금을 모아 개발도상국의 아동을 후원하는 것도 원조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활동은 국제사회에서 오랫동안 ‘국제(해외) 원조’란 단어로 표현해왔다.

또한 ‘국제 구호’라는 단어도 널리 사용된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구호의 의미는 “재난이나 재해 따위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 보호”하는 것이다. 다양한 경로를 통해 모금된 기금은 재난 피해를 입은 국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사용되는데, 이와 같이 국제구호는 재난 복구를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을 뜻한다.

최근에는 원조 및 국제구호 등의 말들이 ‘국제개발 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이라는 용어로 바뀌고 있다. 이는 원조라는 단어가 갖는 일방적·시혜적 이미지를 탈피하기 위하여 제안된 용어이다. 개발도상국의 발전은 선진국에서 유입된 자금과 기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원조라는 단어로 인해 선진국의 지원만이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편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개발도상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자원, 발전을 위한 노력과 혁신은 ‘원조’라는 개념에 가려지기 쉽다. 이는 발전 혹은 개발을 의미하는 영어 ‘Development’를 통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Development는 어원상 “감추어져 있던 것 혹은 싸여 있던 것이 드러나거나 풀어지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를 감안하여 국제개발협력의 주체들이 본래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강조하는 의미에서라도 원조가 아닌 국제개발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수 있다.

2. 국제개발협력과 사회적경제의 만남

사회적경제는 한 사회의 균형적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며 영향력을 끼친다. 지역 사회에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전달과정에 여러 이해당사자들을 참여시켜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 또한 장기 실업자, 장애인, 소수 집단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직업훈련과 기술교육을 제공해 취업을 지원함으로써 사회 통합에 기여하며, 공정 무역(Fair Trade) 등 윤리적 실천을 주도해 기업이 책임 있는 생산에 참여하게 만든다.

국제개발협력의 주체들은 사회적경제의 긍정적 효과에 착안하여 이 영역을 개발협력 사업에 접목하며 개발도상국의 자생적 지역발전 모형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가난한 사람들의 금융자산을 확충하는 소액금융 사업, 스스로 경제 활동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돕는 협동조합 조직화 사업,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비즈니스 역량 강화 사업 등이 그것이다.

국제개발협력 분야가 시장(market)과 함께 일한 역사는 오래되었다. 최근에는 그 속



도가 느리다 할지라도 약한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투영하려는 노력들이 각 분야에서 진행 중이다. 국제개발협력에 사회적경제를 접목시킬 때 명심할 점은 제 아무리 사회적경제 조직이라고 해도 홀로 존재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에 사회적경제 단체를 창입하는 것은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함께 성장해 나가며 공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병행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전 사회적인 변화를 견인할 수 있는 주체가 형성되기 어렵다.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한 인재를 공급하고, 이들이 실험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풍토와 효과적인 정부의 정책 및 지원 등이 서로 톱니바퀴처럼 잘 맞아 굴러가는 토양을 말한다.

따라서 창업과 동시에 생태계에 대한 고민과 이 고민을 실현하기 위한 이해관계자들의 대화 채널 구축 등이 매우 중요하다.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판매하는 비즈니스 모델 구축에 있어서 총체적인 시야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도, 제품을 소비하는 방식도, 사업 이익을 재투자하는 방식도 총체적인 시야 속에서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 일례로 빈곤층 아동을 돕기 위해 아동들의 그림을 디자인으로 사용한 의류를 만들어 선진국에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한다고 가정하자.

그런데 그 의류를 생산하는 개발도상국 제조 공장 노동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하고, 그로 인해 공장 노동자의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해결하고 싶어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이미 수백 년간 누적된 모순이며, 복잡한 역동 속에서 엉켜 있는 실타래와 같다. 엉킨 실타래를 가위로 자르고 풀어 문제를 해결했다고 말할 수 없듯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단 하나의 명쾌한 대안’은 사실상 존재하기 어렵다. 누군가 명쾌하게 대안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허구일 가능성이 크다. 시장이 훼손한 공동체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을 다시 시장을 통해 해결하려는 시도는 늘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우리들이 다루는 것은 ‘사람의 삶’이기 때문이다. 사회적경제망을 구축하고, 생태계를 조성하고, 더군다나 이것을 개발도상국에서 실현해 내기 위해서는 국제개발협력 주체에게 더 많은 학습과 준비가 요구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Ⅲ 국내기관의 사회적경제기반 국제개발협력사업 실천 사례



국내기관의 사회적경제기반 국제개발협력사업 실천사례

- 아름다운 커피_네팔
- 아시아위민브릿지두런두런_네팔
- 굿네이버스_네팔
- 지구촌나눔운동_동티모르
- 성공회대학교_네팔
-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_동티모르
- 한동대학교_르완다
- 열매나눔인터네셔널_르완다
- 한국헬프에이지_미얀마
- 열매나눔인터네셔널_베트남
- 포스코1%나눔재단_인도네시아
- 굿네이버스_몽골
-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_중국
- 월드투게더_케냐
- 굿네이버스_타지키스탄
- 다일복지재단_캄보디아
- 캠프_필리핀





1. 아름다운 커피 -네팔

네팔 굴미 커피 생산지역 기술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및 비즈니스 역량 개발사업”은

201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네팔 굴미의 1,208개 커피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추진된 민관협력 사업



1-1. 현황

▶ 개요

수혜국	네팔
분야	농업
대상층	농민
재정지원	KOICA의 지원금과 아름다운커피 자체자금
홈페이지	http://www.beautifulcoffee.org/

▶ 연혁

2012	네팔커피 품질향상 프로젝트 시작
2013	네팔 공정무역 커피 협동조합 한국, 인도 연수프로그램 진행
2015	아름다운커피 네팔 커피 비즈니스 플랫폼(네팔센터) 개소
2016	네팔 대지진 사례를 통해 본 사회적, 심리적 지원 국제 컨퍼런스 세계 공정무역의 날 네팔 지진 1주기 Coffee for Nepal 행사 진행 네팔 지진 1주기 Coffee for Nepal 세트 출시 네팔 지진 1주기, 네팔 생산자 애도 프로그램 진행



1-2. 목적

- ▶ 커피가공기술, 품질 관련 교육으로 상품작물의 품질개선, 생산성 및 부가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정무역 교육 및 비즈니스 역량개발 지원, 안정적인 판매처 확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공정무역 수출이 활성화하는 목적을 가진다.
- ▶ 최근 네팔 정부는 주요 수입원으로서 커피 재배를 강조하고 있지만, 커피의 주요 생산지인 네팔 서부 지역은 열악한 시장 접근성, 투자와 기술의 부족과 커피산업의 복잡한 유통구조의 어려움으로 농민들에게는 그렇다할 소득을 가져다주지 못했다. 아름다운가게 공정무역사업부 (아름다운커피)는 2006년부터 네팔 서부 굴미(Gulmi)지역 생산자조합과의 직접 거래를 통해 영세농가에 불리하게 작용해왔던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생산자들에게 안정적인 수입원 및 해외 시장판로를 제공하여 왔다.
- ▶ 농민들에게 불리한 현행 무역구조가 굴미 지역의 빈곤의 근원적 문제라고 보고, 공정무역과 가치사슬개발 접근을 통해 시장판로를 개척하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확보하여 지속가능한 가치를 창출하고자 하였다. 생산 및 가공설비를 구축하고 커피품질관리 교육을 통해 커피의 생산성 및 부가가치를 상승하고자 하였으며, 지역협동조합을 구성하고 교육을 통하여 생산자들의 협상력 및 마케팅 역량강화를 목표로 하였다.

사회적 목적	경제적 목적
1) 소득 개선을 통한 빈곤퇴치 (poverty reduction)	1) 생산 및 가공 시설 구축을 통한 상품작물 부가가치 상승 (adding value)
2)협동조합 및 교육을 통한 주민 역량 강화 (capabilities) - 하위 카스트 및 소수 민족에 대한 역량 부여	2) 커피 품질 개선을 통한 농민 소득 증대 (income)
3)공정무역 교육을 통한 생산자 임파워먼트 (empowerment)	3) 판로 개척 및 수출 활성화 (network)

1-3. 주요 사업

- 판매자간의 정보교류를 통한 시장진출 도움
- 구매자에게 생산지 정보제공 및 무역 가이드를 통한 판로 개척

1-4. 추진체계

- ▶ 아름다운 커피는 개발협력기관 KOICA의 지원금과 아름다운커피 자체자금으로 구성된다.



▶ 아름다운커피와 협력하는 헬베타스 커피진흥프로그램은 굴미지역 농민들에게 수세식 가공법 및 품질관리 교육을 제공하고 커피관련 교육 및 운영을 주로 지원한다. 또한 비즈니스 역량강화를 위한 협동조합 교육을 실시하고, 시장가격 및 시장정보에 대한 내용을 교육한다. 그리고 생산자협동조합의 구축을 지원하고 조합에서 필요한 필수장비를 지원한다.

1-5. 결과

▶ 본 사업은 품질관리교육을 통해 자체 품질전문가를 양성하였다. 생산자들이 국제시장의 품질기준을 이해하고 조합 내 전문 인력 배치로 자체적인 품질관리가 이뤄질 수 있게 했다. 또한, 굴미 지역의 생산자협동조합은 품질향상에 필요한 필수장비를 마을 공동기금을 통해 자체적으로 생산자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개별 농민들의 소득 수준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됐다. 또한 장기 거래 관계로 인해 사업지속가능성을 확보하였고 상품작물 부가가치 상승, 생산성 증가, 농민의 소득 개선 등의 경제적 목적 달성과 하위 카스트 및 소수민족의 사회적 포용, 농민 역량 강화 및 지역발전의 사회적 목적 달성을 이룩했다.



2. 아시아위민브릿지두런두런 - 네팔

네팔의 랄리푸르라는 지역은 수도 카트만두에 근접한 외곽도시로 도시빈민들의 거주지역이다.이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일거리의 부재, 낮은 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여성 인권에 대한 인식 희박으로 인해 일자리를 구하는데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시아위민브릿지두런두런은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랄리푸르 지역여성들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기술교육 및 실습훈련기관으로서 베이커리카페 형식의 사회적기업을 설립했다.



2-1. 현황

▶ 개요

수혜국	네팔
분야	제조업, 기술교육
대상층	빈곤 여성, 여성가장 및 고아출신 청년여성
재정지원	개발협력기관 KOICA의 지원금과 두런두런의 자체자금
홈페이지	http://dorundorun.org/

▶ 연혁

2012.10~	네팔 여성기술교육센터 봉제교육(살림이재단 지원)
2013.02.24	네팔 여성기술훈련센터 개소식
2015.01~	'네팔 빈곤여성 소득증대를 위한 제과제빵교육' 운영
2015.07.09	네팔 사회복지위원회(SWC)에 로컬 NGO "아시아위민브릿지 네팔" 등록.
2015.09.11	네팔 DD 베이커리 카페 오픈
2015.11 ~	'네팔 취약계층 여성 취창업 지원 및 베이커리 협동조합 설립'



	1차년도 사업 시작
2016.01 ~	네팔 취약계층 여성을 위한 빵공장 설립 및 운영
2016.05.25	네팔 디디 베이커리 빵공장 오픈(랄리푸르 지역)

2-2. 목적

- ▶ 네팔은 세계에서 가장 개발되지 않은 국가 중의 하나로서 전쟁, 갈등, 지리적 위치 등으로 인해 개발이 늦어졌다. 특히 1994년 이후 10여 년간 이어진 내란으로 인한 정치적 불안정은 네팔 인구의 30%가 최빈층, 45%가 실업상태라는 빈곤한 지표를 가져왔다. 다른 서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네팔 여성의 높은 경제활동 비율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육 및 노동 참여 비율에서 남녀 간 성차가 나타나며 무급노동인구의 약 75%가 여성이다. 랄리푸르는 수도 카트만두에 근접한 외곽도시로 도시빈민들의 거주 지역으로 경제적 빈곤계층 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여성, 한부모 가정 등의 다양한 취약계층이 거주하고있다. 이 지역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기적인 일자리의 부재, 적은 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성의 경우 여성 인권에 대한 희박한 인식으로 인해 대부분의 기회들로부터 배제되고 있다.
- ▶ 아시아위민브릿지두런두런은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랄리푸르 지역여성들을 대상으로 제과제빵 기술교육 및 실습훈련기관으로서 베이커리카페 형식의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여성들의 역량강화와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여 MDGs Goal1.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Goal3. 성 평등과 여권신장에 이바지하는 것이 목표이다.

사회적 목적	경제적 목적
사회적 약자 포용 (inclusion) 전문기술교육 (capabilities)- 교육 여성 역량강화 (empowerment)	소득 증대 (income) 고용창출효과 (jobs) 지역경제 활성화 (economic vitalization)

2-3. 주요 사업

- 취업교육과 창업교육을 통하여 기술인력을 양성
- 베이커리카페 형식의 실습훈련기관을 설립하여 교육 이수자들의 고용을 연계하는 사업을 진행



2-4. 추진체계

- ▶ 투입 자금은 개발협력기관 KOICA의 지원금과 두런두런의 자체자금으로 구성되며, 이 자금은 릴리푸르 지역에 직업교육 및 창업교육을 실시하고, 실습훈련기관 설립 및 운영과 제과제빵 기술자 배출을 통한 취업 및 창업 지원에 자금이 투입된다.

2-5. 결과

- ▶ 제과제빵 기술교육을 통하여 교육 수혜자 취업률 및 창업률을 30% 증가시켜 교육참가 여성들의 소득증대율 30% 달성, 실습훈련기관을 설립과 기술교육을 실습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 직업교육과 실습훈련기관 각 70% 이상의 수료생을 배출, 80% 이상의 교육만족도를 이끌어냄을 목표로 두었다.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제과제빵 교육장을 마련하였고 1회의 제과제빵 초급 교육 과정을 180시간에 걸쳐 실시하였다. 13명의 교육생 중 11명이 수료하여 84.6%의 수료율을 달성하였다. 제과제빵 교육장에 제빵강사, 행정담당, 강사보조 총 3명의 인력을 채용하였다.
- ▶ 여성에게 알맞은 기술교육을 통해 경제력 강화를 돕고 안정적 소득창출로 삶의 질을 보장해줌으로 사회적·경제적 목적을 달성함을 통해 네팔의 심각한 문제인 여성 고용차별에 도움을 주었다. 또한 본 프로젝트는 제과제빵 기술훈련을 통해 릴리푸르 지역 빈곤여성 역량강화와 사회적기업 설립 및 고용을 통한 빈곤층의 경제적 자립에 한걸음 다가갔다. 여성 중에서도 더 소외되고 있는 집단을 우선적으로 프로그램 수혜대상으로 선정하면서 네팔 내의 성 차별문제를 완화시킴으로 고용차별 해소 및 여성자력화를 이끌어냈다. 네팔 여성들의 탈빈곤 및 경제자립화로 인도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3. 굿네이버스 -네팔



3-1. 현황

▶ 개요

국가	네팔 - 무구, 훌라지역
분야	농업
대상층	무구, 훌라지역 주민
재정지원	KOICA 지원금 / 굿네이버스 네팔 자체자금
홈페이지	http://hiumherb.com/kor/h-plant/

▶ 연혁

2013.05.30.	네팔 H plant 사업 실시
2013.06.	사업전략 수립 및 지역사회 비전공유 (6개월 소요)
2014.03.	유통 공급망 및 안정적 판매망 설립 (1년 3개월 소요)
2014.09.09.	허브 추출액 증류장치 설치
2015.06.	제품개발 및 해외시장 진출 (1년 3개월 소요)

3-2. 목적

▶ 네팔 무구, 훌라 지역은 네팔의 75개 행정구역 중 최빈곤층으로 구분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마을 주민들은 주로 계절별 약용허브 채집을 통해 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불균등한 유통 구조와 중간상인들의 유통 및 판매권 독점으로 인해 허브라는 천연 원재료 공급에만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무구, 훌라 지역은 최하위 빈곤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주도하는 개발사업이 거의 전무하며,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개발 NGO의 개입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풍부한 자원과 특산물을 이용한 자립적인 개발을 이루어낼 능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네팔의 약용식물 산업과 산지에 개입함으로써 소득창출 및 지역사회개발을 추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 ‘네팔 H Plant’ 사업은 네팔 무구와 훌라지역의 풍부한 약초를 활용하여 유통, 가공, 가공 등 네팔의 약초산업에 직접 개입하여 산지농민의 시장지향적 생산활동 지원 및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구체적으로 사회적기업 설립을 통해 조합 비즈니스 지원 및 시장개척을 적극적으로 돕는다. 이를 통해서 산지농민들은 시장지향적 생산활동을 통해 수익구조 개선을 이뤄낼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가 이뤄질 것이다. 이외에도 산업기반시설 확보, 고용창출효과 등 다양하면서도 긍정적인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다.

사회적 목적	경제적 목적
사회적 약자 포용 (Inclusion) 전문기술교육 (Capabilites) 생산자 임파워먼트 (Empowerment) 지속가능한 개발 (Sustainability)	시장지향적 생산활동,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소득 증대 (Income) 고용창출효과 (Jobs) 안정적 판매망 구축 (Network) 개선된 기반시설 확보 (Infra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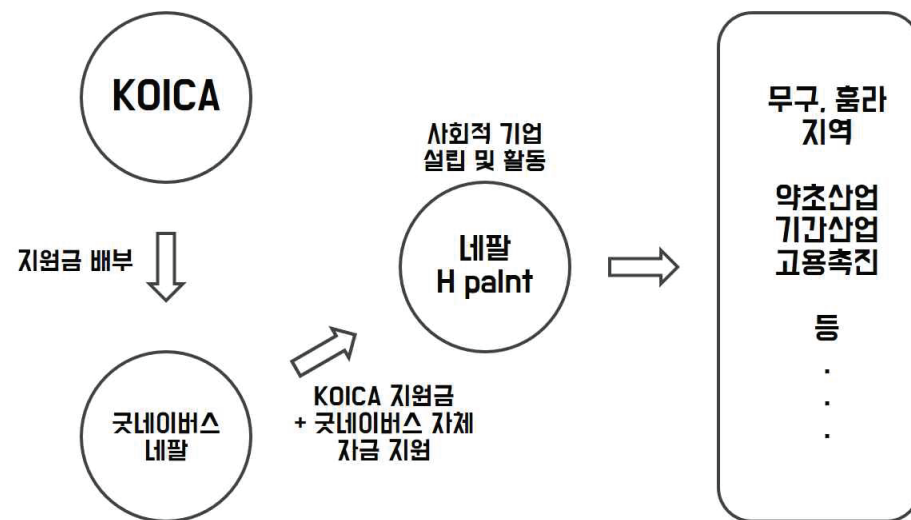
3-3. 주요 사업

- ▶ 허브, 허브 추출액, 오일, 파우더, 비누 등의 가공품을 납품한다.
- ▶ 각각의 가공된 원료들은 향초, 스킨케어 용품, 건강보조 식품 등의 원료로써 사용됨

허브	허브 오일
향초	비누

3-4. 추진체계

네팔 H plant 사업 추진체계



▶ 재정지원으로는 개발협력기관인 KOICA의 지원금과 굿네이버스 네팔의 자체자금으로 구성된다. 굿네이버스 네팔의 자체자금은 약소산업의 수익성 분석, 가치사슬 조사, 사업전략 수립, 마케팅활동비 등에 쓰인다. KOICA의 지원금은 물류네트워크 구축, 정보 시스템 구축, 해외 판매처 설립을 통한 유통망 설립 등에 쓰인다.

▶ 자금 지원 이외에도 굿네이버스 네팔은 고가 약용식물의 공급분석, 시장수요분석, 사업수익성분석, 가치사슬분석, 사업환경분석, 욕구조사 등을 통해 사업성을 조사 및 사회적기업인 '네팔 H plant'를 지원한다. 또한 네팔 H plant의 사회적기업 등록 및 해외홍보활동 판촉활동은 물론 생산 농기계 지원, 경작기술 교육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3-5. 결과

▶ Shova, Chaila, Taklabamta, Silijansil 조합 교육 센터가 건축되었으며, 조합운영 교육 또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외에도 오일 추출 프로세스 교육과 B2B 원료 납품도 1회 완료됨과 동시에 최종 소비재인 화장품과 향초의 샘플 생산 및 가공 납품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

▶ 대부분 원재료 생산에만 집중되어 있는 네팔의 약초산업의 유통과 가공단계에 개입함으로써 중간상인들이 불합리하게 취하던 이윤을 생산자에게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었

다. 또한 무구, 홀라 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를 통해 생산자의 생산능력 및 수익성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었다.

- ▶ 소득증대: 평균 \$83 수준의 소득 창출
- 고용창출: 현지직원 13명 고용(행정직원 및 오일추출직원 포함)
- 교육훈련: 오일추출시설 운영 교육, 비즈니스 및 운영 교육, 농부 그룹 정기 미팅 등 진행
- 현지 인프라 구축: 창고 2개소 건축, 오일추출시설 설치, 기초 가공 기계 지원 및 노새 지원



4. 지구촌나눔운동 -동티모르



4-1. 현황

▶ 개요

국가	동티모르
분야	농업, 교육
대상층	농민, 교사, 학생
재정지원	KOICA, 지구촌나눔운동 본부의 자체 자금, 농우바이오, 영농자문, 삼성꿈장학재단
홈페이지	http://www.gcs.or.kr/gcs/mobile/index.asp

▶ 연혁

2005.08.	공동협력사업 협약서 체결.
2005.09.	시범마을 조성후보지 조사.
2005.11.	식수문제로 우물 시추기계 구입 및 발송.
2009.01.	대한민국 청소년 해외봉사단 마을의 유치원에 페인트칠 벽화그림.
2009.09.	테똌어, 영어교실.
2009.10.	가축백신 접종
2009.11.	도서관 건립을 위한 그림전 개최.
2010.01.	대사협 단기봉사단 예·체능 교육 과 노력활동을 펼침.
2011.11.	가축은행 평가 워크숍 개최
2012.01.	지역개발지도자 워크숍 자전거 지원식이 열림
2012.04.	로스팔로스 지역 꿈 도서관이 열림 LG디스플레이, 오무까누 마을 글로벌 가축은행 지원시작
2012.05.	소규모 마을공공사업 설명회 열림



	교사대상 영어 및 미술교육 설명회 개최 오무까누 마을, 가축은행 지원식 실시
2012.06.	나이레떼 마을 자전거은행 지원식 돼지 사육 축산 교육 열림
2012.07.	소모초마을 공공사업지원식
2012.08.	교사대상 영어방학연수 프로그램 수료식
2012.09.	교사대상 영어·미술교실 수료식이 진행 내 생애 첫번째 독후감 대회
2013.01.	동티모르 사업소 시무식 영어·미술 교사교육이 개강
2013.04.	꿈도서관 8호 개관
2013.05.	꿈도서관 9호 개관
2013.06.	가축 자가 치료교육 실시 동티모르 사업소 공공지원사업 개시
2013.11.	제2회 마을지도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2013.03.	나나꾸루 마을 1개 그룹 대상 가축은행 종료평가식 개최
2014.05.	제 1회 독서장려프로그램
2014.07.	로우로 마을 1개 그룹 대상 가축은행 종료평가식 개최
2014.09.	차라노 마을 1개 그룹 대상 가축은행 대출금 수여식 개최 'UN 세계 평화의 날' 기념 평화교육 및 미술수업 실시 호메초등학교 개보수사업 착공식 진행
2014.10.	포엠아 마을 가축은행 2차 지원 멤버 대상 사전 축산교육 실시
2015.01.	호메초교 개보수 완공식 진행
2015.06.	티모르게이터 건강 쿠키 생산자 그룹 MOU 체결
2016.01.	소액대출사업 중간결과 보고 티모르게이터 쿠키 사업 시작
2016.06.	오무까누 마을 사람들의 평생학습공간 개관식
2017.06.	독서장려프로그램

4-2. 목적

- ▶ 안정적인 소득원이 없는 지역에 소득증대를 위한 수단과 교육을 제공하여 절대빈곤과 기아퇴치에 기여하며, 지역 내 교육의 질 향상시키고 교육환경을 개선하며, 향후 그룹 리더 그리고 지역 리더들의 역량이 강화면서 가축은행 업무와 기금 운영을 주도적으로 담당할 운영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위를 통해 지역 내 가축은행사업의 자체 운영



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려는 목적이 있다.

가축은행 및 영농지원을 통한 가계의 소득증대에 주요 경제적 목적이 있지만 가축은행의 가축구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계의 기준은 여성을 50%이상 혹은 전부 여성으로 한다는 것 외의 가계의 사회,경제적인 기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사회적 목적	경제적 목적
역량강화 (capacity building) 주민 참여 (participation) 교육의 질 및 환경개선 (education)	소득 증대 (income)

4-3. 주요 사업

- ▶ 개도국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소액대출, 영농지원 등의 다양한 소득증대사업을 진행.
- ▶ 무담보 신용대출을 통해 개도국 빈곤가정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가축은행, 싸이카/오토바이은행 등 다양한 소액대출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농업, 축산, 창업을 위한 소규모 종자돈을 제공하여 실질적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 ▶ 농업생산성 향상 및 상품작물 도입을 통한 소득증대를 목표로 시범농장운영과 함께 참여농민 대상으로 조합을 조직하고 농업물자지원, 농업교육, 조합운영 및 재정교육을 진행.
- ▶ 저축이 낮은 개도국 주민들에게 저축의 개념과 필요성을 일깨우고 저축한 금액을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소액저축 프로그램을 진행.
- ▶ 경제활동을 위한 역량과 자본이 없는 극빈가정을 대상으로 비즈니스교육, 창업 자본금지원, 사후모니터링을 진행하여 극빈가정의 소득증대를 도움.
- ▶ 개도국 주민들이 지역환경에 맞는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을 설립하여 소득을 증대시키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
- ▶ 주민 주도의 마을 발전을 이끌기 위해 지도자 양성교육과 마을개발사업을 진행.
- ▶ 마을을 대표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7박 8일간의 합숙교육을 실시하며 주민들은 교



육을 통해 자기계발은 물론 농축산업기술, 지역개발의 중요성과 실행방법, 공동체 훈련 등을 배웁니다. 교육 후 수료생들은 마을로 돌아가 협동조합 및 학습동아리 조직을 통해 마을개발 활동을 진행하며 그들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정기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자문을 제공.

- ▶ 주민지도자교육을 통해 배운 이론을 마을 발전에 적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스스로 기획하고 제안한 소규모 마을개발사업을 지원.

4-4. 추진체계

- ▶ 개발협력기관 KOICA의 지원금과 지구촌나눔운동 본부의 자체 자금, 농우바이오의 채소씨앗 후원 및 영농자문으로 구성되는데, 삼성꿈장학재단도 동 사업에 예산을 지원한다. 협력국 파트너인 라우템 주 교육부와 라우템 주 도서관 운영 관련 MOU를 체결하여 도서관 부지와 관리인력(2명)을 지원 받는다. 라우템 주 농수산부로부터는 영농교육, 밭 개간 및 종자 지원 등의 협력이 지원되고 라우템 주 축산과(농수산부 내)와도 축산교육, 백신접종, 가축관리 등에서 협력할 계획이다.
- ▶ 가축은행 사업으로 지역 내 농가를 대상으로 연 20가정에 가축구입자금을 지원(20~30마리 가축 지원)하고 가축 교배(연 1회) 및 백신접종(2회), 정기 가축점검(매월), 축산교육(연 2회 이상 수혜자 전원대상)을 지원한다. 실제로 3개년 다년도 사업기간 동안 126 가정을 대상으로 32회의 축산교육을 실시 완료하였다. 축사 제작 및 올바른 가축 사육, 질병 발병 시 대처법에 관한 자가 치료 실습도 함께 진행하였다.8) 또한 영농지원사업으로 4개의 시범농장운영 및 시기별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시범농장별 연 2회 공동경작 및 작물 수확, 판매를 실시한다. 교육사업으로는 지역 내 교사(약 25명)을 대상으로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콘텐츠를 보급하고, 외곽지역 학교에 소규모도서관 건립하고, 라우템 주 도서관을 운영한다. 주민역량강화를 위해 리더 회의 및 워크숍, 2개 마을에 공공사업을 지원한다.

4-5. 결과

- ▶ 가축은행 사업의 결과로 신규 구입 가축 수가 연간 20~30마리, 2, 3차년도 총 40~60마리의 신규 구입 가축 수가 증가하고 교배지원을 통해 추가된 가축 수 또한 연간 약 50~100마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신접종 및 가축점검을 통해 질병으로 인한 가축의 사망률이 감소하고 가축사육 및 효과적인 관리에 대한 지식습득 및 가축사육능력이 강화된다. 영농지원사업을 통해 영농기술을 습득하고 다양한 재배를 시도함으로써 생산량 증대, 가정 내영양개선, 판매수입을 통한 경제적 생활 안정화 등의 결과가 기대된다. 교육사업을 통하여 연간 100명, 총 200명의 교사가 교육을 받



고 6개 학교 내 시범교육 및 교육 콘텐츠가 보급된다. 4개 학교에 꿈 도서관이 건립되고 학교별로 100여권의 기본도서 및 관리물품이 보급된다. 또한 독서장려 프로그램, 도서관 이용자 및 관리자 교육을 통해 도서관 이용 및 운영 역량을 강화한다. 주민역량강화 사업을 통하여 연 4회 마을리더 회의 및 워크숍, 3차년도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2개 마을 공공사업을 실시하며 연 4회 관리교육 및 사업평가 워크숍을 실시한다. 실제로 2011년 공공지원사업 실행을 위한 밑바탕작업(주민 대상 리더십 훈련 등), 2012년 2개 사업(바우로 면사무소 개보수, 소모초마을 공동양돈사업), 2013년 3개 사업(모따라 마을 공동 양계사업, 이라라파이마을 공동양계 사업, 나나포에 마을 공동 양돈사업) 실시를 통해 사업 기간 3개년 간 총 5개의 공공지원사업을 실시 완료하였다.

- ▶ 가축의 질병사망률 감소, 효과적인 가축사육능력 강화, 다양한 작물재배 및 판매를 통해 참여 가정에 연간 약 \$100의 추가 소득 발생이 기대되고 이를 통해 자녀 학비 지원, 양질의 식사 제공, 집수리 등 전반적인 생활환경이 개선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동티모르 평균 GDP 기준 15% 이상 소득증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고, 또한 영농지원사업 참여 가정의 경우 식량 자급률이 10%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10) 도서관 운영 후 지역 내 아동의 문해율이 향상되고 주민조직사업 후 지역 내 리더그룹의 주도적 참여가 증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실제로 축산부 공무원이 진행하는 축산 교육에 대하여 그룹 멤버들이 크게 신뢰하고 있으며, 가축 사육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 내용을 적용시키려는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비추어 보아, 효율적으로 가축 사육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 습득 환경이 조성되었다. 가축은행은 특히 일방적 지원이 아닌 상환 방식이 가지는 장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축산 교육 의무 참여, 축사 제작 등 가축은행 사업 시스템이 주민들의 책임감과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5. 성공회대학교 -네팔



5-1. 현황

▶ 개요

국가	네팔 카트만두
분야	교육
대상층	네팔 사회적기업 종사자
재정지원	KOICA 지원금 / 사업팀자체자금 (성공회대학교, (주)트래블블러스맵, (주)페어트레이드 코리아 합동 컨소시엄)
홈페이지	http://www.seacenternepal.com/index.php

▶ 연혁

2013.05.04.	네팔 카트만두 S.E.A 센터(Social Enterprise Activation Center) 개관
-------------	--

5-2. 목적

- ▶ 네팔은 2009-2010년 1인당 GDP가 467불일 정도인 세계 최빈국 중 하나이다. 이러한 저개발로 인하여, 빈곤율은 물론 실업률, 심한 빈부격차 등으로 인해 사회적 소외 계층, 소외지역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히말라야 산맥에 둘러싸인 네팔의 지리적인 요건으로 인하여 관광자원의 가치는 높으나, 무역에는 불리한 상황이다. 네팔의 주요 수출품목은 가내수공업 생산 직물, 수공업품, 농산물 등이며, 이러한 수출품목들은 국제공정무역의 주거래 상품이다. 이러한 네팔의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조건을 고려했을 때 국제공정무역, 공정관광 사업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 ▶ 네팔 S.E.A 센터(Social Enterprise Activation Center)는 사회적기업으로 저개발 국



가의 비즈니스 모델 개발에 적합한 공정무역과 공정여행, 외식업 분야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형성을 위한 현지인 역량강화 및 기반 조성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또한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네팔 현지에서 현지인 교육을 통해 외부 지원 종료 이후에도 영구적인 네팔 사회 발전의 동력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 ▶ 네팔 S.E.A 센터(Social Enterprise Activation Center)는 네팔 소생산자들이 생산하는 수공업품의 판매를 담당하는 공정무역샵, 지역사회기반의 네팔체험프로그램 정보를 제공하는 공정여행 여행사, 여행가이드 양성 및 양성교육장 운영, 네팔 소생산자의 디자인 역량 강화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사회적 목적	경제적 목적
사회적 약자 포용 (Inclusion) 여성 역량 강화 (Capabilities) 주민 임파워먼트 (Empowerment)	일자리 증대 (Jobs) 소득 증대 (Income) 지속가능성 확보 (Sustainability)

5-3. 주요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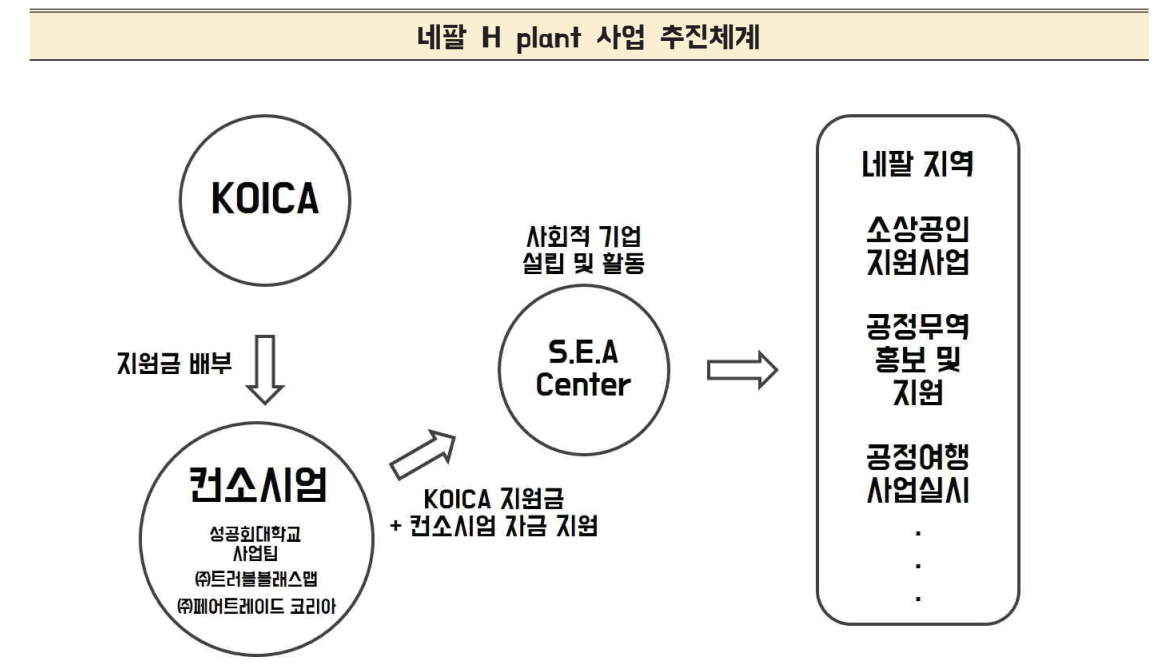
MITINI	MAP-Nepal	Design academy
		

- ▶ Café MITINI
: 사회적경제 카페로써 여성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네팔의 커피문화 활성화 및 홍보를 한 기술훈련을 제공한다.
- 직원 교육 : 지역 여성을 위한 바리스타 교육, 서버로서의 기본 교육, 관리 기술 교육, 네팔의 사회적 기업 및 NGO의 도움을 받아 지역사람들을 위한 직업교육 실시
- NGO,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경제 관련 워크샵을 위한 세미나실 제공
- 네팔의 커피문화 홍보
- ▶ Shop MITINI
: 공정무역을 소개하고 네팔의 공정 무역 단체들을 활성화하는 멀티 상점
- 네팔 내에서의 숙련된 생산자를 지원
- 디자인 아카데미 졸업생의 제품을 상용화



- ▶ Design academy
: 공정무역 제품의 이미지 고취는 물론 공정무역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사업 실시
- 디자인 아카데미의 수업 : 바느질 수업, 디자이너 수업, 패턴 수업
- 디자인 아카데미 졸업생들의 만든 신제품 홍보를 위한 영업 전략을 수립 및 협력
- ▶ MAP-Nepal
: 공정여행 및 공정관광을 위한 네팔 여행사
- 네팔에서 지속 가능한 여행 패키지 개발
- 여행자에게 홈스테이 등 다양한 경험 제공을 위한 마을 지원
- 지속가능한 관광을 장려하는 캠페인 진행

5-4. 추진체계



- ▶ 재정지원으로는 개발협력기관인 KOICA의 지원금과 사업팀의 자체자금으로 구성된다. 대부분의 지원금은 공정무역 부분에서는 디자인 아카데미 및 샵 미티니 운영에 쓰이며, 공정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도 사용된다. 지원센터 운영 및 센터 내 카페 운영에도 투입된다.
- ▶ S.E.A 센터를 통해 수공업품 중심으로 기존에 생산된 공정무역 제품을 판매하고, 디자인 아카데미를 운영 및 이를 통해 수공업품을 내부생산 및 판매하는 과정을 거친다. 공정여행 상품 또한 S.E.A 센터 내에서 개발 및 구축하며, 현지 공정관광 전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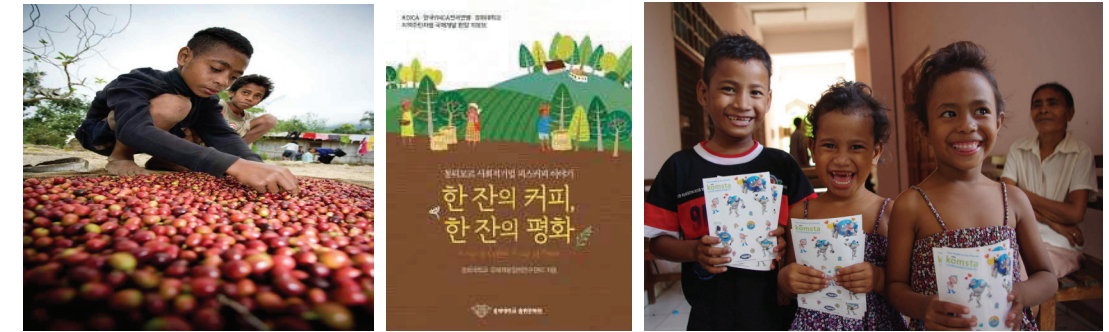
인력을 양성한다. 더불어 S.E.A 센터 내의 카페 운영을 통해 현지 자립을 추구한다.

5-5. 결과

- ▶ 오프라인 허브 S.E.A 센터를 설립하여 카페, 공정무역 Shop, 재봉/패턴교육장 등 다양한 역할과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었다. S.E.A 센터는 설립 후 8개월 동안 방문자 수가 3,500명에 달했으며, 카페와 공정무역 Shop의 매출실적은 12,400\$에 육박했다. 공정무역 디자인 아카데미에서 실시한 재봉 기초 교육 및 디자인 교육을 통해 공정여행 코디네이터 양성 또한 이루어졌다.
- ▶ 공정무역을 통해 기존 공정무역 인증 및 판매 등에서 소외된 수공업품의 생산자들 특히 다수의 여성들을 지원할 수 있었으며, 그들의 자립을 도왔다. 여성 역량 강화 및 사회적 약자 포용을 달성할 수 있었다. 공정여행을 통해서 지정된 마을의 관광상품과 홈스테이를 통해 마을의 전체의 수입 증대를 이룰 수 있었다.



6.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 동티모르



6-1. 현황

▶ 개요

국가	동티모르
분야	농업
대상층	농민
재정지원	KOICA, 자체자금
홈페이지	http://cidec.khu.kr/contents/projects.htm

6-2. 목적

- ▶ 동티모르에서 이루어지는 본 프로젝트는 커피공정무역 자립화를 통한 빈곤 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모델로, 생산자협동조합 기반 구축, 사회적기업 피스커피 운영, 그린 빈가공장 운영과 카페티모르의 운영을 통해 동티모르 내수 시장 참여 및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커피공정무역 자립화 프로그램은 농민들이 생산자 소그룹 가공장 활동을 통해 자립적으로 생산 활동을 해 나갈 수 있고 가공된 그린빈의 공정무역 활성화 및 카페 티모르의 운영을 통해 경제적인 목적을 이룬다. 이와 더불어 생산자협동조합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적기업 피스커피 운영 시 사회적경제 모델을 구축하는 사회적 목적에도 초점을 맞춘다. 특히 카페티모르 운영에서는 사회적 약자의 고용 및 사회 공헌활동을 통해 '윈-윈' 파트너십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적 목적	경제적 목적
사회적 약자 포용 (inclusion) 주민 역량 강화 교육 (capabilities) 생산자 임파워먼트 (empowerment)	일자리 증대 (jobs) 그린빈 가공을 통한 소득 증대(income) 판로 개척 및 수출 활성화(network)

6-3. 주요 사업

▶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와 한국YMCA전국연맹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동티모르에서 커피공정무역, 주민조직운동, 사회적기업 접근을 포함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하였다. '사회적기업 피스커피'는 커피 생산에서 수출 및 동티모르 국내 소비까지 아우르는 가치사슬 체계를 구성하여 농민의 소득 증대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였다. 커피 생산지 사메(Same) 지역에서의 생산자 소그룹 구성 및 운영을 지원하여 커피 품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이 발전의 주체로서 자립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였다. 또한 수도 딜리(Dili)에서는 공정무역커피 수출업과 그린빈가공장 및 카페 운영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역량을 확보하였다.

6-4. 추진체계

▶ 개발협력기관 KOICA의 지원금과 YMCA 동티모르 자체자금으로 구성된다. 이 자금은 프로젝트와 관련된 생산자 소그룹 구성 및 소그룹마다 가공장을 건립하고 가공기계를 구입하는 데에 쓰인다. 사회적기업인 피스커피에는 소그룹 파치먼트 가공지원과 그린빈가공장 운영 지원 및 창고시설확충 지원에도 자원이 투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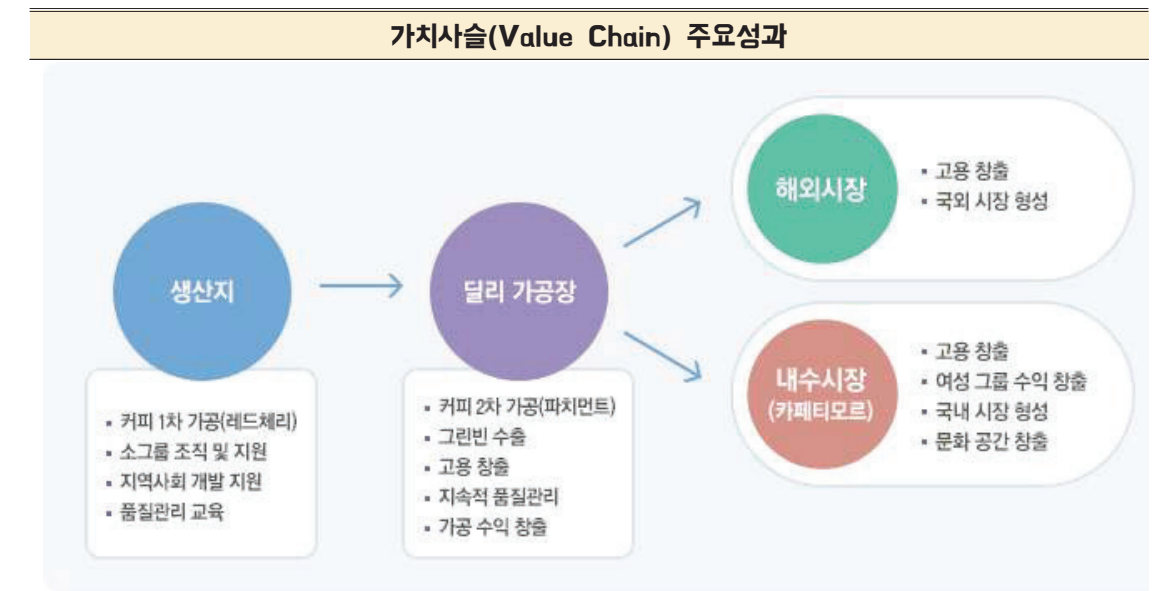
▶ 생산자 소그룹에 대한 기술지원으로 효율적인 커피 생산이 이루어지고 증가한 생산량을 바탕으로 공정무역 수출이 활성화된다. 농민들이 생산한 커피는 피스 커피가 생산자소그룹과의 MOU 체결 후 2023년까지 가공된 파치먼트를 구매하고, 그린빈 가공장을 통해 가공한 후 한국YMCA에 그린빈을 수출하여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 피스 커피는 그린빈 가공장 및 카페티모르 운영을 통한 수익으로 지속가능한 운영 체제를 구축한다.

6-5.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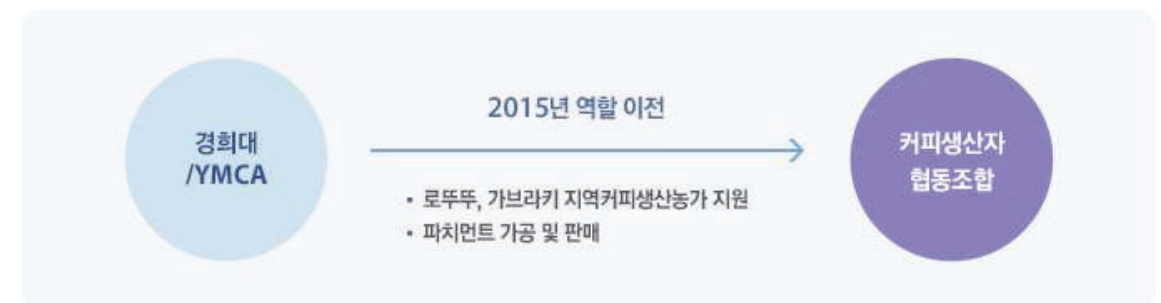
▶ 로뚜뚜 마을 내 커피재배 농가 주민 10~15명을 1개 소그룹 단위로 총 3개 의 생산자소그룹을 구성하여 자립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했다. 신규 가공장 또 한 3개를 건립한 뒤 운영했다. 현지인 전문가는 소그룹 구성원에게 커피재배, 소그룹 및 가공장 운영에 대한 총 13회의 기술, 이론, 관리 교육을 제공 했고 총 329명이 참가했다. 그린



빈 가공장에서는 파치먼트 160톤을 가공하였고 피스 커피는 48.5톤의 커피를 공정무역으로 수출했다. 또한 카페티모르 영업을 통해 고용 및 연 2,500여 달러의 매출을 달성했다. 커피 농민들은 구성된 소그룹에 가입하여 소그룹 가공장 및 그린빈 가공장을 활용하여 그린빈 생산을 원활히 하고 이는 수출 및 카페티모르 영업으로 이루어져 커피 생산자들의 자립을 이루게 된다. 사회적기업 피스 커피 및 피스 커피가 운영하는 카페티모르의 영업은 커피 생산에 참여하지 않는 사회적 약자들의 고용을 보장해줄 수 있다. 따라서 빈곤감소 등의 경제적 목적 달성과 농민과 여성 임파워먼트와 가공 중 다량 배출되는 커피 껍질을 거름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환경적 목적 달성도 중요한 임팩트에 해당된다.



▶ 생산자 소그룹의 자립





▶ 사회적 기업의 자립



▶ 사회적 / 경제적 효과



7. 한동대학교-르완다



7-1. 현황

▶ 개요

수혜국	르완다
분야	제조업, 식품
대상층	저소득층
재정지원	개발협력기관 KOICA의 지원금과 한동대학교의 자체자금
홈페이지	http://www.rzmanna.com https://ko-kr.facebook.com/bakeryrzmanna

▶ 연혁

2013.06	개업
---------	----

7-2. 목적

▶ 르완다는 1994년의 인종 학살의 아픔에서 벗어나 현재 동아프리카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르게 경제 성장을 이룩하고 있는 국가이다. 그러나 르완다의 경제 성장은 고용을 많이 창출하는 제조업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르완다인들이 경제 성장으로 인한 체감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구조다. 약 40%에 달하는 실업률은 르완다 사회 안정을 위협하고 있으며, 대학을 졸업했다 하더라도 심각한 구직난으로 인해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가질 수 없는 현실이다. 또한, 보건 위생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개인 위생의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비누로 손을 씻는 사람의 비율이 전체의 1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 ▶ 한동대학교는 르완다에 사회적기업을 설립하여 저소득층을 위주로 고용을 창출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국제 개발 모델을 만들고자 했다. 비교적 기술 전수가 쉽고, 르완다의 시장상황과도 잘 맞는 베이커리 카페 형태의 사회적기업을 통해서 40명의 신규 고용 창출 및 기술교육, 사회적기업의사회 회원 활동으로 보건 위생 환경 개선 사업을 실시한다.

사회적 목적	경제적 목적
사회적 약자 포용 (inclusion) - 여성 및 빈곤층 주민 역량 강화 (capabilities) - 기업가 정신 교육 주민 임파워먼트 (empowerment)	일자리 증대 (jobs) 소득 보장을 통한 경제적 자립(income) 신규 기업 창업 및 시장 개척(business)

7-3. 주요 사업

- 신규 고용 창출 및 기술교육
- 사회적기업의사회 회원 활동으로 보건 위생 환경 개선 사업

7-4. 추진체계

- ▶ 투입자금은 개발협력기관 KOICA의 지원금과 한동대학교의 자체자금으로 구성된다.
- ▶ 이 자금은 베이커리 카페 라즈만나(Rz MANNA)의 현지 기자재 및 장비 구입, 건축 및 인프라, 현지 임대료 및 현지 운영비로 투입되고, 지역 내 사회적기업 센터 설립 및 기업가 정신 교육에도 자금이 투입된다.

7-5. 결과

- ▶ 베이커리 카페 라즈만나(Rz MANNA) 1호점에서는 30명의 현지인을 고용하였다. 전체 피고용인 중 50% 이상이 1인당 GNI 기준으로 절대 빈곤선(\$465)이상의 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왔다. 또한 피고용자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고용하여 비농업 부문 여성 고용을 향상하였다. 사회적기업 센터의 기업가 정신 교육으로 50명 이상의 세미나 수강생들이 '개발을 위한 기업가 정신 교육을 수강한 후 최소 1개의 신규 기업 창업을 이루도록 돕는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으로는 150여 명의 영양부족 아동에게 건강빵을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 500여 명의 열악한 위생환경 가정에 비누를 보급하는 것도 계획하고 있다.

- ▶ 베이커리 카페 라즈만나(Rz MANNA)가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스스



로 생존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피고용인들의 경제적 자립을 돕는다.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개발에도 기여하고 있다. 사회적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보건 위생 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주변 지역의 보건 위생 환경을 개선하고, 빵 기부를 통해 음식물 쓰레기 감축하고 환경 보전에도 동참한다. 여성 고용과 기업가 정신 교육 과정을 통해 교육 참여자들의 실제 창업으로 이어지게 도움으로 사회적 역할을 해냈다.



8. 열매나눔인터내셔널-르완다



8-1. 현황

▶ 개요

국가	르완다 가헝게리
분야	교육, 마이크로파이낸스(마이크로크레딧), 인프라 구축
대상층	르완다 가헝게리 거주민 및 농민
재정지원	KOICA 지원금 / 열매나눔재단 자체지원금
홈페이지	http://www.myi.or.kr/

▶ 연혁

2013.	르완다 가헝게리 지역 농가소득 증대사업 실시
2014.	KOICA 민간단체지원 사업 선정 및 단년도 사업 실시
2015.	다년도 사업 실시 및 지속가능한 사업을 위한 목표설정
2017.08.	GLP 직업훈련센터 건축 시공

8-2. 목적

▶ 르완다 정부는 '경제개발 및 빈곤감소 전략(EDPRS)'을 2008년부터 2012년에 이르기까지 시행하여 농촌개발을 빈곤감소와 국가개발을 위한 중요한 요소로 삼고 농업생산성의 증대, 농산물 경쟁력 강화, 시장주도의 곡물 거래 등의 세부목표를 설정하여 사업을 진행해왔다. 2013년부터는 "제 2차 경제개발 및 빈곤감소 전략(EDPRSII)"을 수립하고 2018년까지 "지속적인 빈곤감소는 농촌지역의 토지사용법 개선, 농업생산량 증대, 인프라구축 및 시장활성화를 통한 농가의 경제활동 기회 제공과 같은 광범위한 분야의 발전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현재 르완다 농업부는



중점 사업으로 곡물생산성 강화, 가구 소비분사업, 수확 후 곡물관리 및 창고운영, 판매시설 확충, 국가 농업정보망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다.

- ▶ 열매나눔인터내셔널은 르완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방향과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을 르완다 가헝게리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업기술훈련을 통한 농업생산성 증가, 수확 후 곡물관리 역량강화와 유통역량강화를 통한 곡물의 시장가치 증대, 협동조합 운영제도 개선을 통한 농업공동체 강화사업이다.
- ▶ 열매나눔인터내셔널은 2014년에 단년도 사업을 통해 가헝게리 지역에서의 사업을 위한 기반구축을 마친바 있다. 2015년도부터는 가헝게리 지역의 COOPAG 협동조합과의 연대를 통해 협동조합 운영교육, 농업기술교육, 농산물의 보관·가공을 위한 여러 기술교육 등을 실시해오고 있다. 2017년에는 기아 그린라이트 프로젝트 사업단에 선정되어 현재 GLP 직업훈련센터를 건축중에 있다.
- ▶ 가헝게리 지역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농산물 생산 → 보관 및 가공 → 유통 및 판매"에 이르는 포괄적인 농업 가치사슬 강화에 초점을 두고 다음과 같은 세부사업을 진행한다.

사회적 목적	경제적 목적
사회구성원 포용 (Inclusion) 전문기술교육 (Capabilities) 생산자 임파워먼트 (Empowerment) 지속가능한 개발 (Sustainability)	생산성 증대를 통한 소득증대 (Income) 개선된 기반시설 확보 (Infrastructure) 유통구조 개선으로 시장경쟁력 강화

8-3. 주요 사업

- ▶ 농업기술훈련
: 농부훈련학교(Farmers Field School, 이하 FFS)를 통해 가헝게리 지역 농부들에게 주 재배작물인 옥수수 농사의 파종부터 수확 후 곡물 관리까지 전반적인 옥수수 농사의 현대식 농업기술훈련을 제공한다. 결과적으로 농부들의 농업 전문성을 확보하고 옥수수의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 ▶ 옥수수 종자 및 비료 대출 사업
: 파종시기에 돈이 없어 옥수수 농사를 짓지 못하는 농부들에게 옥수수 종자와 비료를 대출해 주는 사업을 진행한다. 종자와 비료를 대출 받은 농부들은 농부훈련학교를 통해 습득한 농업훈련기술을 사용하여 옥수수 농사를 짓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 이후 농부들은 수확물을 판매하여 생긴 수입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며, 상환된 대출금은 다시 다음 종자와 비료 구입을 위해 사용된다.

▶ 농기계 및 농기구 지원

: 가헝게리 지역 농부들은 주로 빗물에 의지해 농사를 지어왔다. 따라서 건기뿐 아니라 농번기에도 물 공급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워터펌프를 지원하며 곡물을 바닥 습기로부터 보호하여 안전하게 건조할 수 있도록 건조용 포대도 지원한다. 또 잘 건조한 옥수수를 낱알로 탈곡시켜야 하는데 이전에는 손으로 일일이 작업했다면 사업 지원을 통해 간이 탈곡기와 디젤로 작동되는 탈곡기계를 사용하여 편리하게 옥수수 탈곡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옥수수 유통 사업

: 옥수수 유통사업은 가헝게리 지역 농부들로부터 옥수수를 공정한 시장가격에 구매한 후에 시장가격의 유동에 맞춰 가장 적절한 가격에 판매하여 농가의 안정적인 판로와 추가 소득을 제공한다. 구매한 옥수수는 창고에 저장, 보관하여 가격이 오를 때 대규모 소매상들에게 판매 또는 옥수수 가루로 가공하여 판매되며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으로 다음 수확 철에 더 많은 농부들의 옥수수를 구매할 수 있게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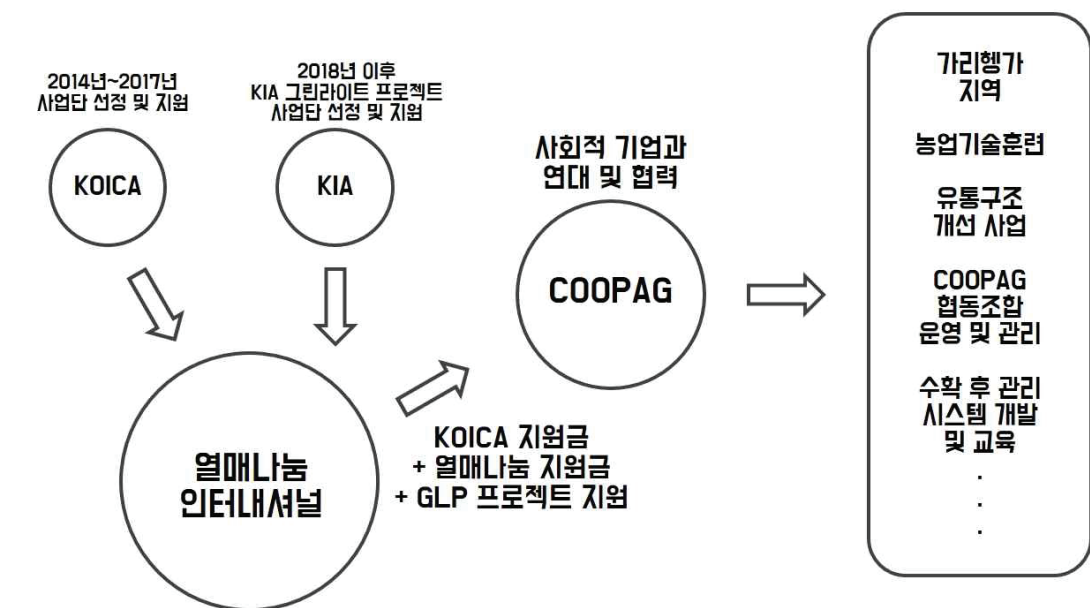
▶ 인프라 구축

: 곡물창고가 없는 가헝게리 내 COOPAG 협동조합을 위해 옥수수 저장 창고(350톤 규모) 및 옥수수 건조장을 건축하였으며, 제분기가 구비된 옥수수 가공소를 구축하였다. 또한 기아 GLP 사업의 일환으로 2017년 8월에 GLP 직업훈련센터 건축을 시작하여 2018년 2월 완공을 앞두고 있다. 센터에는 메인 창고(곡물 및 종자, 비료 보관), 건조장(겉이식), 교육장, 농기계 및 농기구 보관 창고, 센터 사무실, 주차장, 화장실, 주방 등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8-4. 추진체계

르완다 가리헝가 지역 사업 추진체계



▶ 재정지원으로는 개발협력기관인 KOICA의 지원금과 사업팀의 자체자금으로 구성된다. KOICA의 지원금은 업무제도 개선협력, 모니터링 등에 쓰이며, 열매나눔의 자체자금은 사업담당자 선발 및 파견, 현지운영스텝 선발, 현지농업 및 유통전문가 계약, S/W 운영 (농산물유통 매뉴얼 등), H/W 운영 (창고, 기계, 운송수단 등), 르완다 지방정부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쓰인다. 이외에도 COOPAG 협동조합 또한 농업기술훈련 및 수확 후 관리훈련 참가자 선정과 시설 설치부지와 운영인력 제공에 투입된다.

▶ 농업기술 훈련된 조합원 배출, 우량옥수수 종자 보급, 농기구활용 작물재배를 통하여 농업생산성을 증대한다. 곡물관리기술 훈련된 조합원 양성, 곡물건조 및 세척장 설치, 곡물수매 및 유통사업 운영, 유통전담팀 구성하여 곡물관리 및 유통구조를 강화한다. 협동조합운영교육을 실시하고 새로운 조합 조직구성과 조합운영 매뉴얼을 제작하여 좀 더 조직적인 협동조합을 형성한다.

8-5. 결과

▶ 농업생산성 증대를 통해 사업 이후 조합원 평균 1.2t/ha 생산, 총 50% 증대와 곡물 유통역량 증대를 통해 수확 후 곡물관리 역량 증대가 이루어졌다. 유통전담팀 구성과 함께 유통판매체계를 구축하여 연평균 100톤 유통하고 5,000,000RWF 수익이 창출된다. 당초 각 농업기술훈련과 곡물관리기술훈련 당 300명(여성 120명 이상)의 조합



원들이 참여할 계획이었으나 2015년 당초 수요가 많아 예정 인원 이상으로 농업기술 훈련과 곡물관리기술훈련이 실시되었다.

- ▶ 자생적으로 구성된 협동조합과 그 구성원들의 필요에 부합하고 수혜국 정부정책과 일치하는 목표와 활동들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사업 대상의 주인의식(Ownership)과 정부정책과의 일치성(Alignment)을 확립하여 사업종료 이후에도 조합과 정부가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 관리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 ▶ 농업기술훈련을 받은 조합원들은 다시 해당지역으로 돌아가 주변 조합원들에게 배운 내용을 공유하도록 독려하고 있어 훈련생들만 혜택을 입는 활동이 아니라 훈련을 통해 전체 조합원들까지 지식과 기술이 전파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다. 이뿐 아니라 협동조합 내외부의 거버넌스 개선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조합운영체계 개선을 통한 자체적 사업 지속 운영능력 확보, 주변 시장 및 금융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자금 유통역량 확보,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협력관계 확립을 통한 제도적 안정성 확보 등의 조합의 사업지속가능 역량을 구축하고 있다.



9. 한국헬프에이지-미얀마

미얀마 빈곤노인의 자조모임 구축을 통한 소득증대와 홈케어사업 한국헬프에이지는 2003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외교통상부의 지원을 받아 한아세안 협력사업(ROK-ASEAN Cooperation Project)의 일환으로 미얀마의 빈곤노인을 대상으로 홈케어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9-1. 현황

▶ 개요

수혜국	미얀마
분야	- 농기술교육사업 (농작물 재배, 가축사육) - 소득증대사업 (쌀은행, 전기발전기, 소액대출 사업) - 보건건강 교육사업 (보건건강 교육) - 재해대비 교육사업 (예방 교육)
대상층	아야와디(Ayeyarwady), 만달레이(Mandalay) 및 양곤(Yangon) 지역 노인
재정지원	외교통상부의 지원을 받아 한아세안 협력사업(ROK-ASEAN Cooperation Project)의 일환으로 수행. 개발협력기관인 KOICA가 사업비를 지원.
홈페이지	http://www.helpage.or.kr/

▶ 연혁

2009	미얀마 빈곤노인 지원사업 실시
2014	캄보디아·미얀마 노인자조모임 지원사업 2015년도 지속지원 확정



9-2. 목적

- ▶ 현재 미얀마 농촌의 노인은 70% 이상이 농업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 그러나 낮은 농지수율, 농산물 가격의 하락, 노인의 대출 제한, 잦은 흉수, 비료가격의 상승 및 시장 접근성 어려움으로 인해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못하고 있다. 또한 의료 응급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는 열악한 현실에 맞닥뜨려있다. 사이클론피해지역의 조사에 따르면 노인의 74%가 지역의 보건 서비스가 개선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대부분의 노인이 영양에 대한 지식이나 자가 치료법 및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노인의 건강문제를 해결해줄 사업이 필요했다.
- ▶ 따라서 이 사업은 우리나라의 홈케어모델을 바탕으로 미얀마의 사회적 문화적 실정에 맞게 모델을 개발하여 양곤의 랑따야와 인센인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수행하였고, 미얀마의 복지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채택하여 양곤, 빠테인, 뽀우린 등 25여개 지역에까지 확대하여 시행하였다.
- ▶ 한국헬프에이지는 본 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얀마의 빈곤노인들을 위한 노인공동체인 자조모임 지원사업을 2007년 5월부터 파테인 지역에서 추진하던 중 2008년 5월 사이클론의 재앙이 미얀마를 휩쓸자 미얀마복지부의 승인하에 국제헬프에이지(HelpAge International)와 현지 파트너기관인 YMCA와 함께 사이클론 피해지역을 위하여 양곤과이라오디 지역에서 긴급구호활동을 수행했다. 그 이후 국제헬프에이지는 이 지역에서 장기 재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목적	경제적 목적
노인 건강 증진 효과 (health) 노인 문제 인식 제고 효과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효과 (empowerment)	노인 빈곤 해소 효과 (income) 노인 자조모임의 역량강화로 사업의 지속가능 효과(sustainability)

9-3. 주요 사업

- ▶ 신규 10개 마을에 노인리더로 구성된 집행부를 선출하고 각 마을에 10개 노인자조모임을 형성하였다. 또 각 교육별 20명의 노인리더가 자조모임교육에 참석하여 모임운영의 계획을 작성하고, 회계 및 세부 운영, 소액대출사업을 교육시켰다. 10개 마을의 자체 자조모임이 매월 자치적으로 월례회의를 진행하였고 신규 마을 10개소 노인자조



모임에 10개의 소득증대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이 위원회는 사업을 이해하고 사업계획을 작성하였고 각 30명씩 자조모임 회원 총 300명이 참석하였다. 신규 10개 마을 내 110명의 회원에게 소액대출을 지원하였고, 10개 노인자조모임이 각 실정에 맞는 공동수익사업 개발 및 수행하였다. 2011년 4월 기준 노인 자조모임 노인회원 548명이 가입했다. 10개 마을 내 7개 전기발전기 및 3개 쌀 은행 설립을 완료하였으며, 7월 기준 총 10개 마을 내 100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소액대출 실시하고 총 100명의 노인회원에게 소득증대사업 교육 실시하였다. 8월 기준, 총 100명의 노인에게 100명의 자원봉사자가 홈케어서비스 제공하였고 총 200명의 노인회원 및 홈케어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기본 보건건강교육을 실시하였다.

9-4. 추진체계

- ▶ 개발협력기관인 KOICA가 사업비를 지원하고, 사업내용 모니터링 및 평가하였다. 필요시 정부와의 협력을 중재하였다.
- ▶ 한국노인복지회가 사업 진행을 총괄하고, 전체 사업 및 예산 관련하여 KOICA에 보고하고, 사업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
- ▶ 또한 수원국에서 지역 정부 기관과의 사업 관련 업무 협의, 현지 사업 내용 설계 및 진행, 행사별 관련 교육/봉사 인력 섭외, 수혜 대상 사업 내용 정기 교육 및 자체 운영 점검, 사업비 예산 관리 및 보고, 각 사업 프로그램 별 홍보 활동 진행, 수혜자 만족도 조사 및 모니터링 평가 등을 지원하였다.

9-5. 결과

- ▶ 대출 기회가 제한되어 있던 농촌의 빈곤 노인에게 소액대출을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규모사업을 운영하여 소득을 증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행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과 그 가정의 빈곤해소에 도움이 되었다.
- ▶ 노인자조모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노인건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 내 노인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자발적인 동기를 가진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하여 지역 내 자체적으로 빈곤노인을 돌보는 홈케어 사업의 구축함으로써 노인을 돌보는 봉사활동을 활성화했다. 자원봉사 중심으로 이루어지기에 지속가능한 사업이 될 수 있음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노인자조모임의 활동과 성과를 중앙정부 및 지역사회에 알릴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인에 관련한 빈곤, 소외, 건강, 권리 등의 문제에 대한 사회 인식의 제고 기회를 마련했다.



- ▶ 이 사업은 참여형 과정을 채택하여 지속적이고 민주적인 노인자조모임을 형성할 기반을 갖추었다. 이 과정은 위원회 위원 선출을 통해 이루어지며 또한 성비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한다. 위원회의 최소 40%가 여성이다.
- ▶ 사업지역 마을 선정과 워크숍 개최를 통해 지역 정부 관계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끊이지 않았다. 사업을 외부의 지원에만 의존하지 않기 위해, 노인자조모임 이름의 모금활동 및 공동 수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진행했다.



10. 열매나눔인터내셔널 - 베트남



10-1. 현황

▶ 개요

국가	베트남 빈롱
분야	교육, 마이크로파이낸스(마이크로크레딧), 인프라 구축
대상층	베트남 빈롱 영세상인 및 거주민
재정지원	KOICA 지원금 / 열매나눔재단 자체지원금
홈페이지	http://www.myi.or.kr/

▶ 연혁

2013.01.01.	베트남 빈롱시 빈곤계층 마이크로파이낸스 사업 실시
2013.12.31.	KOICA 지원 민간사업 종료 열매나눔인터내셔널 및 베트남 정부 사업 지속 (2019년까지)

10-2. 목적

- ▶ 열매나눔인터내셔널은 2011년부터 현지 지역정부의 정책 일환으로서 빈롱시 지역정부와 MOU를 맺어 마이크로크레딧 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이때 빈롱1동의 빈곤가구, 특히 여성가장들을 중심으로 프로젝트를 기획하여 지원하였다. 기관 자체 사업으로 시작된 이 시범 사업은 1년간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평가되어, 2013년부터는 현지 지역정부뿐만 아니라 코이카의 협력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업을 확장하여 지역 내 수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 ▶ 2011년부터 베트남 남부 빈롱성에서 지역정부와 협력하여 금융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속가능한 자립을 돕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소액 대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영세상인 경제교육 및 지역정부 역량강화 교육, 시장인프라 조성 등 상호보완적인 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립 사업 모델을 만들고 있다. 또한 한국 국제협력단(KOICA)의 민관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 ▶ 마이크로크레딧(소액대출)을 통해 지역 저소득층의 빈곤상황을 개선하고, 지역정부의 역량강화 및 주민 조직화를 통해 지역사회 개발을 촉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MGD 1항의 절대빈곤과 기아퇴치, 8항의 개발을 위한 국제파트너십 구축을 달성하고자 한다.
- ▶ 구체적인 사업목표는 다음과 무담보 소액대출을 통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여 빈곤가정의 생계 개선하는 것이다. 영세 규모의 사업장에게 시설지원, 작업환경개선 및 협동조합 기반의 마케팅 지원을 통해 수익성 향상, 소득증대를 증대시킨다. 이를 통해서 파트너 시 산하에 빈곤층 특화사업을 위한 상시 조직 결성 촉진으로 지속 가능한 지역개발사업을 육성하고자 한다.

사회적 목적	경제적 목적
빈곤퇴치 (Poverty reduction) 지역정부 및 주민역량강화 (Capabilities) 여성 임파워먼트(Women Empowerment)	일자리창출 (Jobs) 수혜자 수입 증가 (Income) 지속가능한 지역개발 (Sustainable development)

10-3. 주요 사업

- ▶ 지역 영세상인 마이크로크레딧(소액대출) 지원
: 베트남 빈롱성 인민위원회와 함께 빈롱성 9개 지역(빈롱1동, 빈롱2동, 탄호아, 탄안롱, 롱프억, 히우푹, 푸꾸이, 롱호, 롱안)에서 경제적인 자립의지를 가진 영세상인들을 선발, 사업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무담보 저리이자로 대출해주는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실시한다. 열매나눔과 인민위원회는 대출 가정의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며 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사후관리팀을 통한 체계적인 상환 및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 ▶ 영세상인 기초 경제 교육
: 마이크로크레딧 지원을 받는 영세상인들을 대상으로 기초 경제교육을 실시, 각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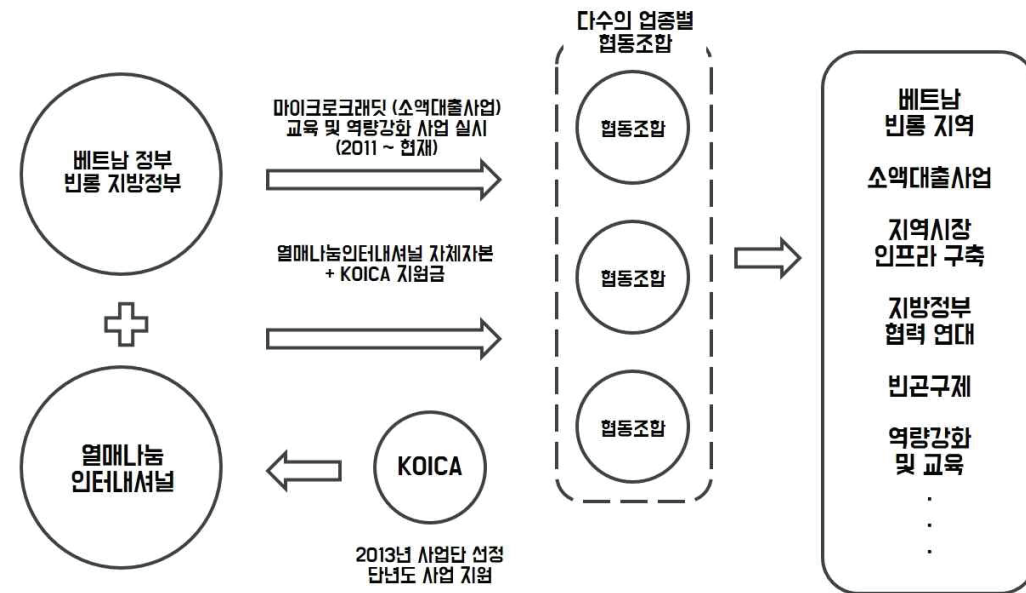


장의 지속적인 성공을 돕는다. 기초경제교육은 기초경제개념 및 사업계획의 수립, 실질적인 사업 운영방안 등의 교육을 제공해 시장경제를 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또한, 교육을 통해 기본 경제지식이 없는 영세상인들에게 현재를 돌아보고 내일을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 지역시장 인프라 구축
: 점포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영세상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상설 시장을 제공한다. 지난 2014년, 열매나눔은 탄안롱과 탄호아 지역에 각각 야시장과 재래시장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이후 지역정부와 함께 푸꾸이, 롱호, 롱안, 롱프억 지역의 재래시장의 인프라 구축도 진행 중에 있다. 마이크로크레딧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된 시장 인프라 구축은 해당 영세상인들의 소득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지원하는 지속가능한 자립 모델이다.
- ▶ 영세농민 희망암소대출 지원
: 베트남 빈롱성 탄안롱 지역 내 영세농민들에게 소득 창출을 위해 암소 대출 사업을 진행한다. 탄안롱 인민위원회와 함께 자립의지를 가진 저소득층 농민을 선정하여 암소 사육에 필요한 교육과 예방 접종을 실시하고 대출 받은 암소가 건강한 송아지를 낳을 수 있도록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대출 받은 암소는 영세농민의 농사에도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송아지를 낳음으로써 소득 창출의 기회까지 제공한다.
- ▶ 지역정부 역량강화 교육
: 영세상인의 자립을 돕는데 있어 중요한 현지 파트너인 지역정부의 행정력을 강화하고 각 지역별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업지역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지역정부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을 실시한다.

10-4. 추진체계

베트남 빈롱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 추진체계



- ▶ 재정지원으로는 개발협력기관 KOICA의 지원금과 열매나눔인터내셔널의 자체자금으로 구성된다. 지원금을 바탕으로 빈곤계층을 위한 마이크로크레딧을 시행하며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마이크로크레딧 관리자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 ▶ 2011년에 실시된 빈롱1동 주민 100가구가 수혜를 본 시범 사업 모델을 참고로 하여 2013년에 빈롱3동 지역 빈곤가정을 대상으로 실행되었다. 또한 시범 사업을 통해 확인된 미비점을 개선하여 2013년 사업에 적용하였다. 대출금은 250달러로 공산권 국가의 특성상 대출자금은 수혜자들 내에서 골고루 배분되었다. 이자율은 중앙정부가 권고한 연7.8%를 적용했다.
- ▶ 영세작업장을 대상으로 작업장의 환경을 개선하였으며, 단위사업별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육성하였다. 영세작업장에서 동일한 상품을 제조하는 경우가 다수였기에 협동조합형 사업방식을 적용하였다.
- ▶ 동시에 작업장 환경 진단과 가격결정, 품질관리, 홍보, 고객서비스 등을 연대하여 수익성을 높이는 컨설팅을 실시하여 경쟁력을 높이하고자 하였다. 이와 동시에, 공동체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구축 및 소액저축 활동 장려 캠페인을 펼쳤다. 마지막으로, 시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10-5. 결과

- ▶ 201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출금의 상환율은 98.97%를 기록하였다. 영세 작업장의 환경개선을 통해 생산량 증대를 기대하였으며 협동조합을 통해 공동출하, 유통 등을 장려하여 납품 단가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주민협동은행을 설립하였으며, 시 주도의 저소득층 특화사업 조직을 상설화하도록 하였다.
- ▶ 무담보 소액대출을 통해 빈곤가정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협동조합형태의 사업 지원으로 영세사업자의 수익성을 향상하고자 하였다. 시 공무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문가를 파견하여 결과적으로 시의 사회적경제 생태를 구축하고자 했다.



11. 포스코1%나눔재단-인도네시아



11-1. 현황

▶ 개요

국가	인도네시아 찰레곤
분야	사회적기업 설립, 기술교육, 직업훈련
대상층	베트남 빈곤 영세상인 및 거주민
재정지원	KOICA 지원금 / 열매나눔재단 자체지원금
홈페이지	http://www.poscofoundation.org/ http://www.kpse-si.com/

▶ 연혁

2014.02.	사회적기업 설립을 위한 평가 실시
2014.10.	사회적기업 설립 결의
2015.03.11.	인도네시아 사회적기업 PT. KPSE 설립
2016.12.	KOTRA, BKPM가 평가한 최고의 CSR 회사 선정

11-2. 목적

▶ 인도네시아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5~6%의 양호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전체 실업률은 크게 감소하였으나, 최근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청년 실업률이 크게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업훈련을 통한 노동력의 질 향상, 고용환경 개선 등 다양한 노력을 실시하고 있지만 성과가 미흡한 편이다.

▶ POSCO는 동남아지역 진출 전략의 일환으로 3조원을 투자하여 최초의 해외 일관제철 소인 PT.KP를 건립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현재는 2기 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가 진



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KOICA와 POSCO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지속가능한 성장 (SDG)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생계 확보, 공평한 성장이라는 개발 의제의 실현을 위해 인도네시아 내 POSCO 제철소 PT.KP의 비즈니스 가치사슬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프로젝트 실시에 협력한다.

▶ 인도네시아 일관제철소가 위치한 찰레곤 소재의 PT. KPSE를 통해서 사망라야 (Samangraya)·꾸방사리(Kubangsari)·뜨갈라뚜(Tegalratu) 3개 마을을 중심으로 청년들에게 취업과 직업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회사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지역사회 사회공헌활동을 통해 환원하고자 한다.

▶ PT.KP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설립하고 직접 고용을 달성하는 경제적 목적 뿐 아니라 직업 교육을 통해 안정적인 청년 일자리 확보 체계를 마련하는 사회적 목적을 이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단순 노무직 지원 대상을 사업대상지역 내 무직청년(고졸, 18세~24세)로 제한하고 컴퓨터 중심의 직업교육과 인성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지역청년 연합회(YouthCommunity Association)와 협력하여 창업 아이디어전을 개최하고 선발된 우수팀에게 실제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적 목적을 이루고 지역기반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한다.

사회적 목적	경제적 목적
취약계층포용 (Inclusion) 청년역량강화 (Capabilities) 주민 임파워먼트(Empowerment)	일자리 증대 (Jobs) 소득증대 (Income) 지역기반 산업육성 (Sustainable)

11-3. 주요 사업

▶ 직원 역량강화 규율 훈련

: KPSE는 인도네시아 소재 현지 포스코와 다양한 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의 양성과 높은 수준의 윤리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해 입사 전 단계를 입사 전형에 합격한 뒤 KPSE에서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훈련의 내용은 훈련생들이 사는 지역 사회의 윤리, 사회적 규범을 무시하지 않고 훈련생들이 규율을 지키며, 회사와 동료와의 관계를 원만히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교육은 세랑의 BRIM. PoldaBanten과 협력하여 실시되고, 세랑 경찰서의 BRIMOB 명령 본부에서 5일 간 연속 실시된다.

▶ 직원 역량강화 인성 및 자기개발 교육

: KPSE에서의 교육은 신입 연수생의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하는 데 주력한다. 교육생



들은 각각 개성을 갖고 있으며, 그에 따라 자기개발을 위한 다양한 주제를 접할 수 있다. 교육의 내용은 자신에 대한 이해, 지역 명사의 특별 강연, 지역 종교자들의 특별 강연, 작업장에서의 규범 이해, 직업 윤리강령 등을 포함한다. 이상의 훈련을 통해 신입 연수생들의 정착을 원활히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사무자동화 역량 증대 교육 (컴퓨터 교육)

: 한달 간의 규율 및 자기개발 교육을 거친 후 신입 연수생을 사무자동화 역량 증대 교육 과정을 수련한다. 이 기간 동안 컴퓨터 교육 과정이 개설되며, 연수생들은 컴퓨터를 비롯한 각종 사무자동화를 위한 프로그램 활용법을 교육받는다.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활용을 기준으로 교육이 실시된다. 이 컴퓨터 교실 훈련 프로그램에서, KPSE는 SekolahTinggilmuk컴퓨터(ST.OM)Al-HaairiyahCitangkil 회사와 협력한다. 교육의 마지막 과정에서 신입 연수생들은 자격시험을 치루며, 기준 점수를 통과할 경우 인증서를 수여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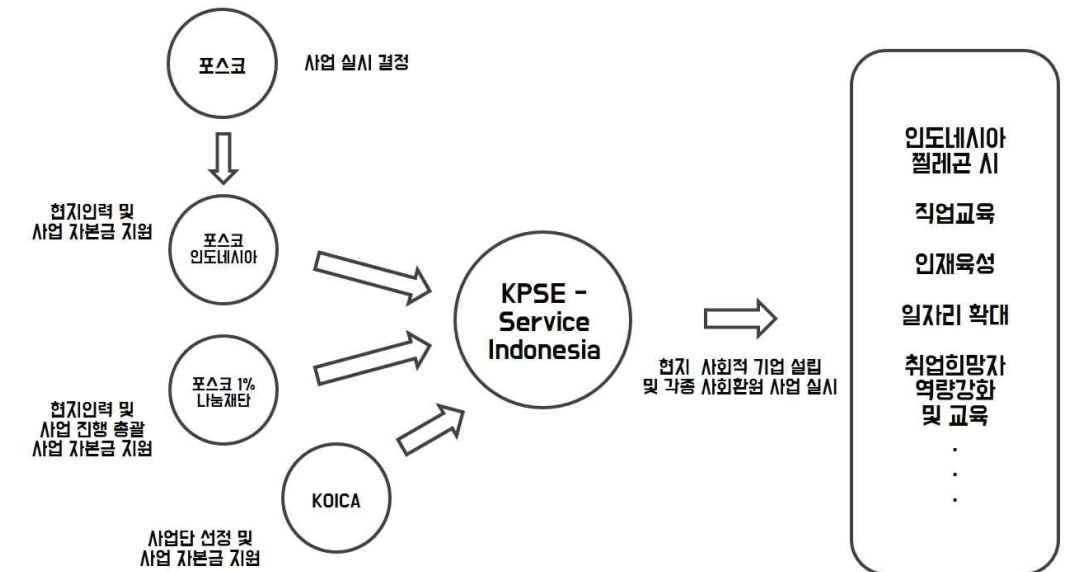
▶ 현장실무 및 엔지니어링 교육

: 하드 스킬 트레이닝으로도 불리며 현장에서 필요한 기본적인 실무 및 기술 교육이 이루어진다. 기술 공정에 대한 이해, 산업폐기물의 처리 전반과정, 용접과 해체작업, 도면에 대한 이해교육 등 다양한 기술경험을 쌓을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신입 연수생들이 쥘레곤 시의 여러 분야에서 활동 가능한 인적자원으로써의 교육과정을 마치게 된다. 구체적으로 연수생들은 인도네시아 현지 포스코 지회사와 이외의 다양한 회사에서의 취업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충분한 경쟁력을 갖는 인재로써 거듭날 것으로 예측된다.



11-4. 추진체계

KPSE 인도네시아 사업 추진체계



▶ POSCO의 인도네시아 법인인 PT.KP의 인프라(120만평의 제철소)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PT.KP의 외주업무를 수행하는 자회사를 사회적기업 형태로 설립하고 사회적기업 내에 HRD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인도네시아 내 사회적기업 설립으로 청년실업을 감소에 기여하고 사회적기업 내 단순 노무직 직원을 대상으로 HRD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수 청년 인력을 양성하고 이들의 재취업의 기회를 보장한다. 창업 아이디어전에서 선발된 팀들이 마을사업을 런칭할 수 있도록 한다.

11-5. 결과

▶ 사회적기업 설립을 통해 사회적기업 고용 상시인원 26명 및 단순노무 계약직 연 2회 각 30명 등 지역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 녹화(Greenzone) 및 저수지 청소 용역작업을 수행할 단기 일용직 200명 규모로 고용하여 주민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창업 아이디어전에서 선발된 팀들이 1년간 총 6개의 마을사업을 런칭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 사회적기업의 운영을 통해 인도네시아 쥘레곤 빈곤지역인 Ring1지역의 청년실업자들의 일자리 창출을 이루고, 사회적기업의 수익은 지역사회에 다시 투자하는 가시적인 경제적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 ▶ HRD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수 근로자들을 PT.KP 외주사협의회(23개 기업, 고용규모 2200명) 네트워크를 통해 보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재취업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효과뿐 아니라 청년들의 역량 강화라는 사회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 ▶ 2015년 말까지 총 3기에 걸쳐 총 81명의 교육생을 배출한 가운데 이 중 63명(77%)이 인근 지역 기업 취업에 성공했다. 한편 2016년 6월 선발된 4기 교육생 27명이 현재 교육과정 중에 있다.



12. 굿네이버스 - 몽골



12-1. 현황

▶ 개요

국가	몽골
분야	환경
대상층	저소득층
재정지원	KOICA, 자체자금
홈페이지	http://goodneighbors.org.mn/

▶ 연혁

2009.11.	축열기(G-saver) 모델 개발 완료 및 수정
2010.02.	울란바트라시 내 축열기(G-saver) 약 8,000대 보급
2010.11.	사회적 기업 Good Sharing Ltd. 설립
2011.03.	울란바타르시 7개 구역 G-saver 4,000대 보급사업
2012.06.	울란바타르시 바양골구 G-saver 1,500대 보급사업
2013.03.	축열기 사용대상 확대를 위한 우르한가이 아이막 지역 조사

12-2. 목적

- ▶ 몽골에서 이루어지는 본 프로젝트는 적정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을 통한 시장기반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모델로, 몽골 저소득층을 위한 난방효율개선 및 대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려는데 있다.



적정기술 축열기 (G-saver) 3만대 보급을 통한 난방비 40% 감소 효과로 몽골 빈곤 가정의 동절기 빈곤상황을 개선 및 대기오염 감소하려는데 있고 대기환경개선 및 에너지 빈곤해충을 위한 적정기술을 이용한 신규 난방제품 개발하는데 있다.

사회적 목적	경제적 목적
소비의 기회/재생산을 통한 시장형성 구매를 통한 생계육구 및 문제 해결	소득의 기회/유통망 형성 고용의 기회/창업 또는 비즈니스 확대의 기회

12-3. 주요 사업

- ▶ 2010년부터 3년간 약 8,000대의 축열기(G-saver)을 보급하면서 몽골 정부와 주민들 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 사업 추진의 타당성 확보하였으며 ‘적정기술’ 및 ‘사회적 기업’의 개념을 포함한 사업 으로 최근 국제개발협력의 흐름을 반영하였다.
- KOICA(정부)-굿네이버스(CSO)-KAIST(대학) 간 최초로 기획된 민관협력사업으로 개발협력연대 사업의 취지에 부합함.

12-4. 추진체계

- ▶ 1차년도- 총 13.5억원(현금 및 현물)
산출기준 - DAK(개발협력연대) 지원금 : 11억원 - 굿네이버스 자체 지원금: 2.5억원
- 몽골 정부 축열기 보조금(예정): 1.6 억원

*3차년도 진행 시, 총 45억원(DAK 지원금 32억원, 굿네이버스 자체지원금 7억원, 몽골 정부 축열기 보조금(예정) 6억원

12-5. 결과



- ▶ 축열기(G-saver) 사용 대상 3만 가구(12만 명) 확대하였고, 5개 거점 도시에 반 가 공 공장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100명)하였으며 신규 친환경 난방 제품 개발(지역 난방 보일러 필터, 초소형 화력발전 난로)하였다.



13. 가나안농균운동세계본부 - 중국



13-1. 현황

▶ 개요

국가	중국 단둥 광명촌
분야	교육, 기반시설 건설
대상층	중국 단둥 광명촌 주민 1500명
재정지원	KOICA 지원금 / 세계가나안운동본부 자체자금
홈페이지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wcanaan http://cafe503.daum.net/_c21_/home?grpid=16ihE

▶ 연혁

2008.04.	비닐하우스 시설 건축사업
2008.09.	식수개선사업 실시
2008.12.	공동이용시설 완공
2009.03.	가축입식시설 완공
2009.04.	식수개선사업 완료

13-2. 목적

- ▶ 중국 단둥 광명촌은 밭농사 위주의 단일작목인 옥수수를 주 작목으로 단인작목재배를 통해 농사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여 농업생산성은 물론 농가소득이 매우 낮은 상황이다. 농가 부업과 농외 소득원도 부재하며, 농사 작업 환경



도 열악한 상황이다. 따라서 환경개선, 영농형태의 경영개선을 통해 소득 증진과 생활 여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 ▶ 중국 단둥 광명촌은 옥수수를 단일작목으로 경작하는 저소득 농촌지역으로, 전문 농업기술교육 기관과 인력이 부재하다. 따라서 이 지역 청소년들은 심각하게 낮은 질의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다. 단둥가나안농학교는 이 곳에서 버섯 재배 시설을 운영하여 버섯 생산으로 인한 고소득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버섯에 대한 기술 인력이 상주하고 있어 농업기술 대안학교 설립과 지역주민 대상 단기 농업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버섯협동조합 설립하여 버섯을 공동 재배할 수 있도록 하고 버섯 판매로까지 연결시켜 수익을 창출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 중국 단둥 광명촌에서 이루어진 본 프로젝트는 버섯 재배 자립화를 통한 빈곤퇴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모델로, 다음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목적을 가지고 있다. 먼저 고품질 버섯 종균, 배지를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공급하고 버섯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공동 작물 재배를 통해 고소득을 창출하는 경제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목이버섯 재배 시 현재 200평에서 얻어지는 700위안(한화118,300원)의 소득이 5,000위안(한화845,000원)으로 7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 된다. 농업 기술 교육을 통해 고소득 작물 재배기술을 습득할 수 있고 대안학교 교육과 지원을 통해 교육생의 자립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사회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사회적 목적	경제적 목적
작물 재배 기술 습득 (Capabilities) 대안학교 교육과 지원 (Education) 생산자 임파워먼트 (Empowerment)	일자리 증대 (Jobs) 버섯 재배를 통한 소득 증대 (Income) 고품질 버섯 종균, 배지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 (Quality)

13-3. 주요 사업

- ▶ 재배작목 전환 시범입식 사업 (비닐하우스 건설)
: 비닐하우스 4동을 설치하여, 버섯, 들깨, 상추, 깨, 고추 등을 시범 재배할 계획이다. 광명촌의 경우 옥수수 농사를 주로 짓는데 한 무(한마지기)에서 거둬들이는 수익이 12-15만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재배작목 전환을 통해 농가 소득을 증진시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관련 종균, 종자를 저렴한 가격으로 유통 및 재배법을 교육하였다.
- ▶ 축산사업 도입 (복합영농체계 구축)
: 산양, 닭 사육은 수익성이 좋으며 고부가가치를 지니고 있다. 광명촌의 일반 농가에



서 사육하게될 경우 새로운 소득원으로 충분한 역할을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배설물을 이용한 퇴비 생산도 가능하며, 농작물 재배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위해 가축입식시설을 구축 관련 시설의 운영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진행하였다.

▶ 기반시설 구축 및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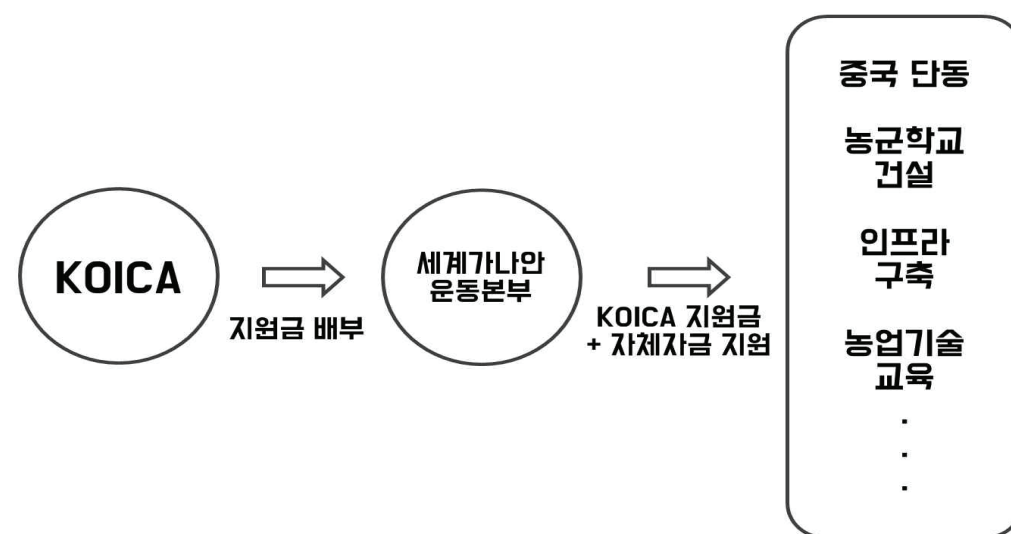
: 식수 및 공동이용시설의 개선과 건축을 통해 활력 있는 농촌마을 조성을 추구한다. 마을에 수원이 없어 제대로 씻기도 어려운 환경을 고려하여 식수개선 사업을 우선적으로 착수하였다. 특히 식수개선 사업을 통해 이, 벼룩, 빈대 등을 예방하여 주민건강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물, 화장실, 샤워장, 빨래터 등 마을 공동이용시설은 주민들의 위생 환경개선과 주민건강 향상에 많은 증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영농기술교육을 통한 주민 영농기술능력 배양

: 지역주민들은 단일작물로 옥수수만을 재배하고 있다. 옥수수 재배가 실패할 경우 대체작물이 없어 가계소득은 심각한 위협을 받게된다. 따라서 새로운 작물재배기술교육은 이런 단일작물재배 농사방법을 탈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단동농학교는 2008년부터 화훼영농교육과 특수작물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13-4. 추진체계

중국 단동 가나안 농학교 추진체계



▶ 개발협력기관 KOICA의 자금 지원을 기반으로 세계가나안농군운동본부가 인력을 파견하고 사업진행을 총괄, 사업비 지원 및 사업홍보를 담당한다. 또한 지역정부와 업무를



협약하여, 지역 주민 및 교육기관과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외에도 교육시설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한다.

▶ 수원국 지방정부는 촌민위원회를 만들어 고소득 작물 개발과 지역청소년 기술교육을 위한 행정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프로젝트 홍보 및 교육생 모집, 선발을 담당하고 협동조합 설립 농가들을 구성한다.

13-5. 결과

▶ 단동가나안농학교를 통해 버섯을 재배할 10,000평의 농장과 종균을 생산할 공장 및 실습장 약 700평의 건물을 제공할 수 있었다. 또한 종균 재배장을 설치하여 재배시설을 마련하여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었다. 또한 버섯 재배에 대한 기술 전수 및 농업기술 대안학교를 통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었다.

▶ 목이버섯 종균, 배지 생산과 관련하여 하루 최대 생산량은 5,000개 정도 이고, 생산량은 178,000개 중에서 133,000개 성공하여 성공률은 74.7%이다. 농업기술 대안학교는 교육인원을 빈곤계층 청소년들로 중학교 중퇴나 저학력 학생들을 우선으로 하여 20명 선발하였다. 주민 농업기술 교육과 관련하여 버섯 재배에 대한 실익을 홍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설명회 및 세미나를 개최하여 관심을 끌어내는 데 주력하였다. 협동조합 설립과 관련하여 농가당 6,200위안의 수익이 발생하였다.

▶ 농업 기술을 교육과 전문 인력을 양성할 2년제 농업 기술전문 교육기관이 필요한 중국 단동 지역에 농업 대안 학교를 설립함으로써 인해 상급학교 진학을 포기한 학생들을 선발, 교육시킴으로써 전문 인력을 창출하고자 했다. 지역 주민 대상으로 단기 농업기술 교육 프로그램을 실행하여 목이버섯, 축산, 화훼 재배 기술의 농가 보급과 기술 정착을 도왔다. 교육 이후에도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버섯 우량 종균생산, 종균 보급, 공동 재배, 공동 수확, 공동 판매 등에 관한 관리, 평가가 가능하며, 소득 분석과 경영 성과를 실시하여 자립형농장 유도도 가능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으로 보인다.



14. 월드투게더-케냐



14-1. 현황

▶ 개요

국가	케냐
분야	농업
대상층	빈곤층
재정지원	사회적지원 자체자금
홈페이지	http://www.worldtogether.or.kr/ko/

▶ 연혁

2013.05.	PMC(가축출사업 운영위원회)구성 1차 수혜자 1차 교육
2013.07.	1차 수혜자 가축대출사업 발족식
2013.10.	1차 수혜자 축사박람회 방문
2014.03.	1차 수혜자 상환 시작
2014.08.	2차 수혜자 발족식
2014.10.	바링고 축산 박람회 참가
2015.01.	2차 수혜자 상환시작
2015.06.	3차 수혜자 발족식
2015.10.	바링고시 카바넷 축산박람회 참석
2016.06.	4차 수혜자 발족식
2016.07.	3차 수혜자 상환시작



14-2. 목적

▶ 월드투게더는 수년간 케냐 카바넷과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젖소대출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케냐 가축대출사업은 지역 주민 스스로가 젖소를 대출받아 기르며 자신의 삶에 대한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월드투게더는 지난 2013년부터 케냐 카바넷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젖소 대출, 축사관리, 원유 생산 그리고 협동조합 운영 등 다채로운 사업을 진행해 왔다. 주민들 스스로가 문제인식을 통해 빈곤을 벗어날 수 있는 의지와 역량을 갖추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월드투게더 젖소대출사업의 목적이다. 월드투게더는 효과적인 사업을 위해 사전조사를 통해 선정된 가정을 대상으로 젖소대출을 위한 이론교육 및 실습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 목적	경제적 목적
사회적 약자 포용 (inclusion) 전문기술교육 (capabilities) - 교육 지속가능한 개발 (sustainability)	소득 증대 (income) 안정적 판매망 구축 (network) 경제적 자립 (empowerment)

14-3. 주요 사업

▶ 빈곤과 굶주림에서 악순환을 끊는 좋은 변화의 시작, 월드투게더는 가축대출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빈곤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월드투게더는 지역 주민들의 참여에 기반을 둔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을 창출할 수 있게 하여 결과적으로 소외된 가정의 경제 자립을 이룰 수 있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지역이 발전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다.

14-4. 추진체계

▶ 월드투게더는 수년간 케냐 카바넷과 그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젖소대출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케냐 가축 대출사업은 지역 주민 스스로가 젖소를 대출받아 기르며 자신의 삶에 대한 자생력을 갖추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월드투게더는 지난 2013년부터 케냐 카바넷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젖소대출, 축사관리, 원유생산, 그리고 협동조합 운영 등 다채로운 훈련을 진행해 왔다.



14-5. 결과

- ▶ 지난 2013년부터 총 50마리의 젖소가 케냐 카바넷 지역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대출되었고 이는 총 365명에게 직, 간접적으로 도움을 준다. 50마리의 젖소는 총 61마리의 송아지를 낳았고 젖소를 통해 판매한 원유는 약 106,948리터로 이를 통한 수입으로 젖소대출가정은 경제적인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15. 굿네이버스-타지키스탄



15-1. 현황

▶ 개요

국가	타지키스탄 카마로브 지역
분야	농업
대상층	농민
재정지원	KOICA 지원금, 굿네이버스 자체자금
홈페이지	http://tajikistan.goodneighbors.kr/

▶ 연혁

2011.02..	카마로브 지역 소득증대 사업
2011.03.	카마로브 지역개발 시작
2011.12.	카마로브 지역 “직업교육센터” 신축 도서관 리모델링 및 도서관 지원
2012.01.	농업협동조합을 통한 카마로브 지역 소득증대 사업
2013.09	카마로브 지역 개발사업장

15-2. 목적

- ▶ 소득증대사업은 제한된 자원과 정보, 낮은 기술로 인해 빈곤 상황에 처해있는 지역주민들의 기회를 확대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한다. 초기 자본금 및 기술 지원과 비즈니스 역량 강화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균등한 경제 성장을 추구하며,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창출하는 사회적 기업을



설립 및 운영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돕는다.

카마로브 지역은 타지키스탄 내전 때 반군이 지배했던 곳으로, 지역 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미약한 지역이다. 좋은 이웃들은 카마로브 지역에 도착하여 양어, 양계, 소수력 발전, 수공예 바구니 등 타지키스탄 지부가 지역 주민들의 자립적인 삶을 위해 활발히 진행하고 있는 소득증대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그들을 힘껏 응원한다.

사회적 목적	경제적 목적
사회적 약자 포용 (inclusion) 지역사회역량강화 (capacity building) 주민 참여 (participation)	고용창출 및 소득 증대 (income) 지역경제기반 구축 (infrastructure) 전문가집단 네트워크 구축 (network)

15-3. 주요 사업

- ▶ 교육보호사업
: 야까치노르 지역은 도시의 발전에 따라 방치되어 슬럼화되고 있음 마약 우범지대 중 한 곳이다. 미에 타지키스탄 지부는 1999년부터 빈곤가정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으며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 ▶ 보건의료사업
: 지역 주민 중 85%는 하루 1달러 미만의 수입으로 생활하고 있으며, 높은 진료비 탓에 대다수의 지역주민이 보건소나 병원을 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지역사회의 병원과 보건소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들이 전문 의사로부터 질 높은 의료서비스와 의약품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 ▶ 권리옹호사업
: 타지키스탄에는 조혼 풍습이 있어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지 못하고 사회활동이 제약되는 문제가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성들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실 및 재봉교실 등을 통해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여성들이 소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 긍정적으로 소득을 갖게 해 양성평등에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 식수위생사업
: 타지키스탄에서 안전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는 인구는 전체 주민의 13%밖에 되지 않는다. 특히 겨울철 전기 공급에 제한을 겪고 있어 원활한 전기 공급과 식수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15-4. 추진체계

- ▶ 프로젝트 초창기 카마로브 지역 내 농업협동조합 구성을 추진했으나, 행정적인 문제로 인하여 사회적기업을 통한 지역개발전략을 수립
- ▶ 투자금은 개발협력기관 KOICA의 지원금과 나눔과기쁨 본부의 자체자금으로 구성된다. 이중 굿네이버스가 총사업비의 34.2%를 자체자금으로 조달한다.
- ▶ 협력국 파트너로 타지키스탄 공화국의 라쉬쿤트, 보키-라힘조다와의 협력을 통하여 사업부지를 20년간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 ▶ 국영양어기업인 모히토직과의 MOU를 통하여 양어시설 및 양식기술을 전수받고, 양어양식과 관련된 행정적 지원을 받는다.
- ▶ 씨감자 전문 NGO인 Tukhmiparvar와의 MOU 체결을 통해서 씨감자 바이러스 감정 및 병충해 관리, 기술자문 및 모니터링에 관한 협력을 받는다.
- ▶ 라쉬쿤트 지역의 양봉 협회로부터 기술지원, 양봉사업지원 및 각종 재료, 설비 구매, 기술 자문을 받는다.

15-5. 결과

- ▶ 라쉬트트의 노동인구 중 80%는 소작농이고 10%는 해외송출인력으로 나가있었다. 소득증대사업을 통해 일자리 창출 되었고, 장기적으로 남성인력의 해외 송출을 감소시킬 것이다. 이는 지역 내 성비 불균형의 해소로 이어져 지역 내 아동노동 및 여성 문제 해결에 기여하며 안정적인 가계구조로의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 ▶ 사업운영을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은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며 수익금의 일부는 지역사회 인프라 구축 혹은 취약계층보호를 위해 사용된다. 마지막으로 청정자연환경을 활용한 사업진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룰 수 있다



16. 다일 복지재단 - 캄보디아

“프놈 꼬라움 마을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캄보디아 전통 공예 지원 사업”으로서
현지 다일공동체와 협력하여 2013년1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었다.



16-1. 현황

▶ 개요

수혜국	캄보디아
분야	공예
대상층	농어촌 마을 여성
재정지원	개발협력기관 KOICA의 지원금과 다일복지재단 자체자금
홈페이지	http://www.dail.org/

16-2. 목적

- ▶ 사업의 대상 지역은 농어촌 마을이다. 마을주민의 대다수가 어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남성중심의 노동 구조를 갖추고 있어 여성의 실업률이 높은 편이다. 그리하여 특히나 프놈 꼬라움 취약계층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에 힘을 쏟았다.
- ▶ 본 사업은 프놈 꼬라움 마을의 180 가구를 대상으로 캄보디아 전통 공예 기술을 보급하는 것이다. 지역주민 역량 강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했다. 따라서 프놈 꼬라움 마을 전통 공예 기능인을 양성하였으며 협동조합을 결성하고 마을 내 공예 제작장과 전시장도 만들고, 공예촌을 형성했다.



사회적 목적	경제적 목적
절대 빈곤 감소 (poverty reduction)	일자리 창출 (jobs)
주민 역량 강화 (capabilities)- 교육	소득 증대 (income)
취약계층 여성의 임파워먼트 (empowerment)	지역 경제 활성화 (economy)

16-3. 주요 사업

- 공예 기술 교육을 통한 공예 전문가 양성
- 공예 교육생 및 기능인 대상 협동조합 설립
- 공예품 유통 구조 시스템 구축

16-4. 추진체계

- ▶ 사업 자금은 개발협력기관 KOICA의 지원금과 다일복지재단 자체자금으로 구성된다. 먼저, 상반기, 하반기에 나누어 각각 6개월의 훈련 기간 동안 주당10시간 실습 교육을 실시했고, 총 20명의 전통 공예 기능인을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었다. 교육내용으로 제작에 관한 기술 기본 이론 및 실습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예 디자인 설계 및 리소스 개발도 함께하여 공예기술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또한, 교육 실습 훈련 대상자들과 마을 공예 기능인 및 지역 대표로 구성된 협동조합을 설립하였다. 조합 규칙을 마련하고 매달 조합원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였으며 공예 기능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했다. 지속가능한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공예품 판매를 위한 DB 및 유통 분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고 판매 유통 채널을 확보하였다.

16-5. 결과

- ▶ 상반기, 하반기를 합쳐 총 19명의 실습생에게 전통 공예 기술교육을 실시했다. 수료한 훈련생들은 교육 후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이를 위해 27명의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운영을 지원하였다. 수료생들은 공예 기술을 활용하여 해먹 등을 제작하여 판매하였으며 공예품 전시회 및 판매장을 확보하였다.
- ▶ 공예품 판매로 발생하는 수입으로 수료생들은 가게 수입을 유지하게 되었고, 이로써 여성의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소득증대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또한 협동조합을 통해 공예촌의 지속가능한 운영 및 주민 역량 강화에 기여했으며, 판매 유통 채널을 확보하여 통합적 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17. 캠프 - 필리핀

‘필리핀 불라칸주 타워빌 이주민지역 사회적기업 설립을 통한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사업으로, 필리핀 도시빈민들을 대상으로 직업 역량강화 사업이다. 극심한 빈곤과 기아퇴치를 목표로 하고, 사회적 기업인 봉제센터와 베이커리를 설립 하였고 지역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17-1. 현황

▶ 개요

수혜국	필리핀
분야	봉제, 베이커리
대상층	월수입 최하위 생활수준, 다수자녀 가정, 여성가장, 무직자 우선 대상
재정지원	KOICA의 지원금과 사단법인 캠프의 자체자금
홈페이지	http://icamp.asia/

▶ 연혁

2006~	캠프 설립을 위한 빈곤 현장 답사
2009~	캠프 아시아 이사회 구성 및 필리핀 정부 비영리법인 등록
2010~	한국과 필리핀 전문가 필리핀 빈곤 현지 방문 조사 필리핀 타워빌 조토(ZOTO) 빈민지원센터 건축
2011~	필리핀 정부 교육 기술 담당기구 TESDA 캠프봉제센터 봉제기술교육 업무협약 필리핀 불라칸주 타워빌 주민 자치조직 HOA와 상호협력 협약체결 필리핀 불라칸주 타워빌 사회적기업 캠프봉제센터 개관식, 교육수료식 기념 패션쇼 필리핀 캠프봉제센터 유치원 직영 개원



2013~	필리핀 타워빌 사회적 기업을 통한 지속가능한 마을 만들기 사업 필리핀 타워빌 봉제센터 ‘익팅’(igting) 브랜드 개발 및 자치조직 ‘익팅’활동시작
-------	--

17-2. 목적

▶ 필리핀 불라칸주의 산호세델몬테시는 62만여명의 인구가 살고 있는 도농복합형 지역이다. 타워빌은 마닐라의 동북쪽에 위치한 야간을 개산해서 형성된 재난 이주민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도시빈민 강제철거 및 태풍 화재 등으로 생활터전을 잃은 12,000여 세대(대략 8만5천여 명)가 살고 있다. 아주 기본적인 주거와 상하수도 정도 이외의 보건·의료·복지·직업시설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환경에서 주민들은 살아가고 있다. 또한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가 없어 생계유지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타워빌 지역에 사는 대부분 가정들은 생계를 위해 마닐라 지역으로 가 막 노동 등의 일을 한다. 그곳에서 조차 낮은 임금과 정기적이지 않은 일자리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타지에서 일을 하면서 장기간 별거로 인해 가정해체가 일어나고 있고, 남겨진 여성과 아동들의 어려움이 심각한 상황이다.

▶ 캠프에서는 2009년 타워빌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여러 탐색을 통해 2011년 7월 사업을 시작했다. 2012년부터는 KOICA의 대학파트너십 사업 ‘필리핀 불라칸주 타워빌 이주민지역 사회적기업 설립을 통한 빈곤퇴치 및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만들기’를 진행해왔다. 이 사업을 통하여 사회적기업인 봉제센터와 베이커리를 설립 및 운영하여 타워빌 지역주민 빈곤퇴치에 필요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15년부터 3년간 사업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센터를 설립하여 양질의 기술인력을 배출하고 사회적기업을 설립해 극심한 빈곤과 기아퇴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이다.

사회적 목적	경제적 목적
사회적 약자 포용 (inclusion) 전문기술교육 (capabilities)- 교육 지속가능한 개발 (sustainability) 아동 보건 증진 (child health care)	소득 증대 (income) 고용창출효과 (jobs) 안정적 판매망 구축 (network) 지역경제 활성화 (economic vitalization)



17-3. 주요 사업

- 직업훈련 센터 설립으로 타워빌의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 사회적 기업 봉제센터와 베이커리를 설립 및 운영

17-4. 추진체계

- ▶ 사업 자금은 KOICA의 지원금과 사단법인 캠프의 자체자금으로 구성된다. 이 자금은 타워빌 지역에 직업기술훈련센터 건축 및 운영, 사회적기업 설립 및 운영에 투입되고 봉제와 제과제빵기자재 구입에도 사용된다. 또한, 종사자 자조모임설립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Day carecenter 건축 및 운영에도 자금이 투입된다.

17-5. 결과

- ▶ 직업훈련센터를 건축하여 봉제와 제과제빵 기술 교육이 가능한 장소를 구축했다. 재봉틀 22대와 제과제빵이 가능한 시설을 구비하고 필리핀 국가인증자격증 취득이 가능한 봉제·제과제빵 커리큘럼 수립 및 정부인증 강사를 확보하였다. 이를 통해 교육이수생 100명을 배출하고 80%의 취득율을 달성했고 기술인력을 바탕으로 봉제·제과제빵 사회적기업을 설립했다.
- ▶ 운영공간은 직업훈련센터 내 공간을 분할하여 공동사용하고 재봉틀 50대를 확보하여 봉제 50명, 제과제빵 10명으로 연중 50명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사회적기업 지속성을 위하여 종사자 자조모임을 설립하고 직선제 선발을 통하여 자조모임 임원 5명을 선발했다. 이 사업의시작부터 외부 관계자는 사업 운영에 최소화하여 참여하였다. 지속가능한 자립형 사업을 목표로 두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사업운영 과정에 자조모임 회원들이 직접 참여하여 의사결정을 진행하면서 자립심 및 주체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도왔다. 나아가 직업훈련센터와 사회적기업 종사자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유치원 운영을 통하여 연간 50명 총 150명의 유치원생에게 보육, 기초교육과 급식을 제공했다.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총 기간 수혜자 664명 중 139명이 수혜를 받았다.

IV 해외기관의 사회적경제기반 국제개발협력 실천 사례



해외기관의 사회적경제기반 국제개발협력사업 실천사례

- Aliet Green 유기농 사회적기업
- AllLife의 취약층 생명보험 서비스
- CFW(Children and Family Wellness) 약국프랜차이즈
- CommCare 보건의료 모바일 플랫폼
- COMACO 보존농업 협동조합
- Divine Chocolate의 Kuapa KoKoo 농민협동조합
- EPSSF 소작농 협동조합





1. Aliet Green 유기농 사회적기업



1-1. 현황

▶ 개요

국가	인도네시아
분야	농업
대상층	농민 여성
재정지원	USAID 임팩트 투자
홈페이지	https://aliet.green/

1-2. 목적

사회적 목적	경제적 목적
취약층 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 확보 다른 직원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	전문 비즈니스 개발 서비스(BDS)를 제공 보조금, 융자를 통한 사회적 기업 정착 소농민들의 소득증대와 부업 소득

1-3. 주요 사업

- ▶ 공정무역 코코넛 유기농 상품 판매
- 코코넛 설탕



- 코코넛&생강 설탕
- 코코넛&강황 설탕
- 생강 및 강황 재배물품 판매

▶ 코코넛을 활용한 가공상품 판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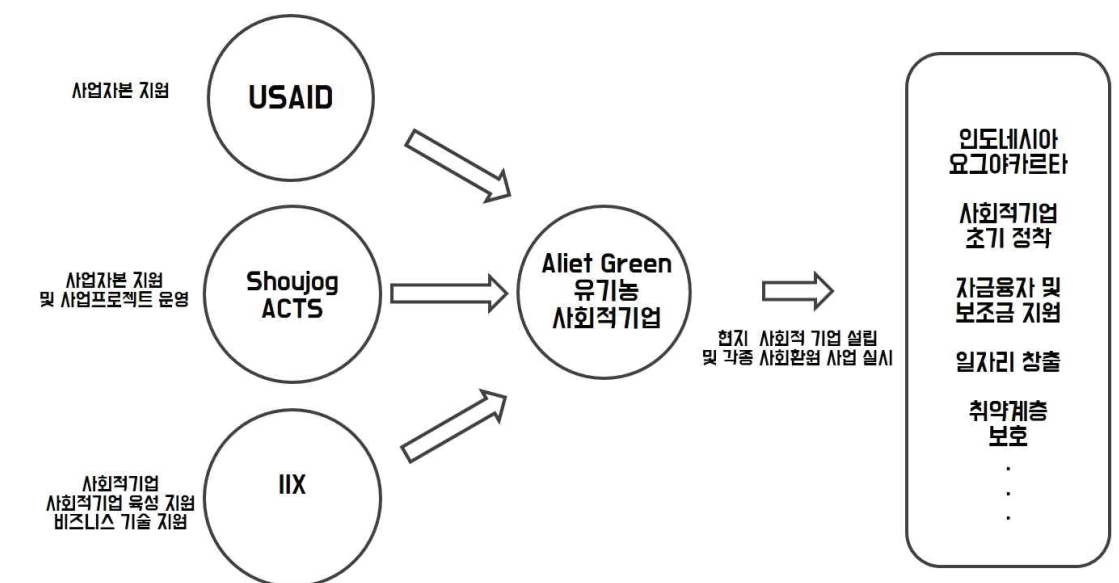
- 코코넛 오일
- 코코넛 칩
- 살라크
- 커피

▶ 각종 특산 과일 판매

- 구아바
- 파인애플
- 살라크
- 파파야
- 망고

1-4. 추진체계

Aliet Green 사업 추진체계 도표화



- ▶ Aliet Green 유기농 사회적기업은 USAID와 싱가포르 Shoujog ACTS의 임팩트 투자를 지원받아 사업이 진행된다. 사회적기업들이 지원받기 어려운 전문 비즈니스 개발서비스(BDS) 구체적인 기술지원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 설립되도록 초기보조금과 융자를 제공받아 상환하는 임팩트 투자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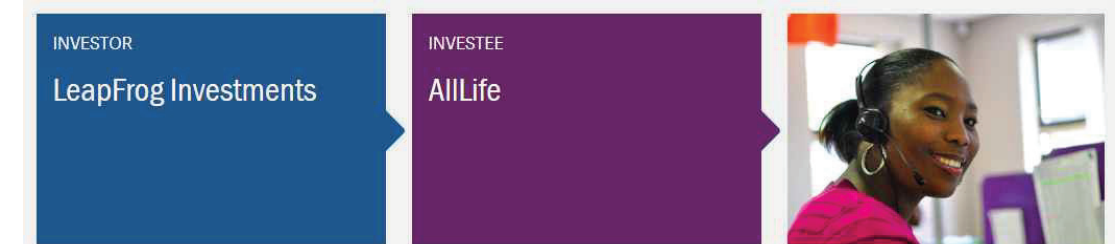
- ▶ Shujog ACTS는 사회적기업들이 투자 준비에 필요한 전문가 지원을 받도록 지원하는 보조금과 상환 선수금을 복합해 재정을 지원한다. 우선 Shujog ACTS의 전문가 팀이 구성되어 임팩트 사정(impact assessment : IA)을 실시한다. 이후 비즈니스 플랜, 금융모델, 초안, 투자자 발표 등으로 사회적기업들이 지원받기 어려운 구체적인 기술지원을 받도록 펀딩을 제공한다. 즉, ACTS는 사회적기업들에게 보조금과선불의 상환 가능한 용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 ▶ ACTS에 의해 사업파트너로 선정된 사회적기업은 기술지원기관인 IIX의 비즈니스 기술지원을 이용한다. IIX는 싱가포르에 본부를 두고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사회적기업의 자본접근을 지원해 사업의 규모를 확장 및 증대시키도록 지원한다.
- ▶ Aliet Green은 인도네시아 최초의 공정 거래 코코넛 야자 설탕 공급 업체이다. Aliet Green은 여성들이 인도네시아의 농업 사회의 생태적, 사회적 및 경제적 기본 틀에 중심 역할을 하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Aliet Green은 교육 장학금, 건강 보험 및 지역 사회 전체의 공중 위생 시설에 대한 판매 대금의 일부를 기부하고 지역 미숙련 여성 고용을 위한 신중한 노력을 통해 지역 사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1-5. 결과

- ▶ 2014년 시행되자마자 소농민들의 소득증대가 발생하고 부업 소득이 늘면서 사회적기업 구성원들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이 이뤄지고 있다. 303명의 소농민들이 소득증대와 부업 소득이 발생했고, 비숙련 여성인 93명의 직원들은 사회적기업의 생산 시설에서 일하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갖게 되었다. 성공적으로 자본 증식이 이뤄졌다. 2015년에 778 명의 소농민들이 유기농 인증 교육훈련을 받아 소득 증대를 이룰 것으로 기대된다. 193명의 직원들도 안정적인 소득원을 제공받을 것이다.



2. AllLife 취약층 생명보험 서비스



2-1. 현황

▶ 개요

국가	아프리카, 아시아, 남아프리카
분야	보험업, 금융업
대상층	저소득층, 취약계층
재정지원	Leapfrog Investment
홈페이지	https://alllife.co.za

2-2.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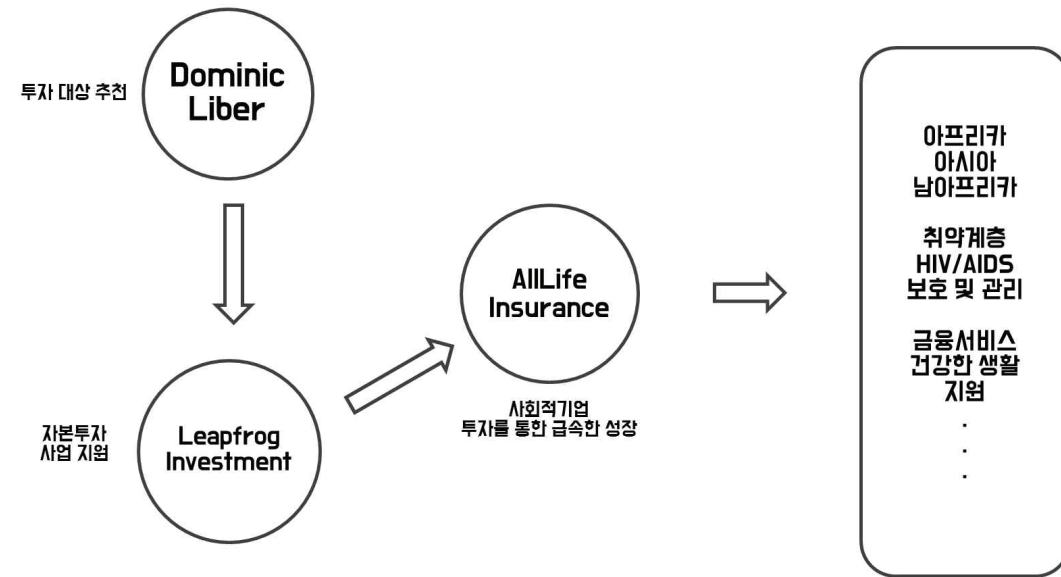
사회적 목적	경제적 목적
저소득층, 취약계층 보호 사회안정망의 구축	잠재적 소비자의 육성 시장확대를 통한 공리 증진

2-3. 주요 사업

- ▶ 생명보험 상품 제공
: 취약계층, 저소득층, HIV/AIDS, 당뇨 투병자 등 보험 서비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적절한 생명보험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음은 물론 보건 서비스를 이용가능하게 하여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2-4. 추진체계

Aliet Green 사업 추진체계 도표화



▶ Dominic Liber의 추천으로 Leapfrog Investment가 AllLife Insurance에 1390만 달러 상당을 재정지원 함으로써 사업이 진행된다. Dominic Liber는 Leapfrog의 파트너로서 투자할만한 사업이나 기업을 탐색하여 추천해주며, Leapfrog는 그를 바탕으로 사업 자본을 투자한다. AllLife는 투자금액을 바탕으로 상당히 빠르게 큰 규모로 사업을 확대하여 운용 중이다.

▶ 지분투자를 통해서 Leapfrog는 사업자금을 융통하는 지원역할을 수행하며 사회적기업인 AllLife는 자본을 바탕으로 보험 서비스 개발, 건강 유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용을 담당한다. 이 사업을 통해 고가의 보험료를 낮추고, 잠재적인 보험 서비스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한다.

2-5. 결과

▶ 2010년 첫 투자가 이뤄진 이후 AllLife의 수입은 두 배 이상 증가해, 두 번째 콜센터를 개설해 팀원을 늘렸고 새로운 보험 상품들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AllLife는 당뇨와 HIV/AIDS로 생활하는 취약층의 보건의료 서비스에 적합한 보험 상품을 제공해 왔다.

3. CFW(Children and Family Wellness) 약국 프랜차이즈



3-1. 현황

▶ 개요

국가	케냐 르완다
분야	보건
대상층	BOP
재정지원	HealthStore
홈페이지	http://www.cfwshops.org/

3-2. 목적

▶ CFW 모델은 소형 약국과 진료소의 네트워크로, 우선적으로 빈곤층에게 필수 의약품을 공급하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 말라리아, 호흡기 질환 등 가장 보편적인 사망 질병들에 타겟을 맞춰, 치료약 공급뿐 아니라 교육과 예방 활동으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적 목적	경제적 목적
가족계획 진흥, 인구증가율을 감소 효과적인 약의 적절한 공급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	신뢰성 있는 공급사슬을 구축 양질의 저렴한 약을 안정적으로 공급 보건의료 시스템의 과잉밀집 문제를 해결



3-3. 주요 사업

- ▶ 개발도상국의 많은 아동들이 전염병으로 사망하는 현실에 대한 해법으로 저렴한 기초 의약품을 지원해 아동 전염병의 70-90%를 치료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으로 세계 여러 지역에 간호사나 보건 의료직원들이 HealthStore 프랜차이즈 CFW 숍을 소유해, 운영하도록 하는 프랜차이즈 비즈니스 전략을 추진해, 궁극적으로 약이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에게 양질의 저렴한 약을 공급해 지역사회 건강증진에 기여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3-4. 추진체계

- ▶ 2000년 사회적기업 Healthcare Foundation은 케냐에 첫 민간 보건소 아동가족건강 (Children and Family Wellness: CFW) 숍을 개설해, 말라리아, 설사 등의 치료약을 공급해왔다. 많은 지역에서도 이런 진료소나 약국들이 있지만, 도시 슬럼지역이나 농촌에서는 보건 접근의 기회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다른 지역들에서도 의약품 접근의 기회가 빈약한 실정이다. 사회적기업인 HealthStore Foundation의 미션은 다음과 같다. “스탠다드를 유지해 지리적 규모를 갖춘 규모의 경제를 추구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에서 아동과 가족들에게 필수 의약품, 기초 보건케어, 예방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개선한다.”
- ▶ 2000년 Scott과 Eva는 자신들의 자금을 투자해 중앙 케냐 지역에 11개의 CFW 약국을 개설하며 리더 역할을 했다. 또 2001년 Management Sciences for Health (MSH)과 협약으로 재단에 기술자문을 제공해 왔다.
- ▶ MSH는 Gates Foundation의 재정지원을 받아 세계에서 주도적인 보건개발조직으로 활동한다.
- ▶ HealthStore Foundation의 CFW 모델의 핵심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 첫째, 정확한 진단과 약 처방을 위한 철저한 기술 훈련을 이수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임상기술과 관리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훈련으로 기초 훈련을 제공한다.
 - 둘째, 적절한 가격의 약을 공급하면서 양질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집중적 조달이 이뤄진다. 신뢰할만한 평판을 가진 공급체의 제품만을 구입하고 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질 표준 관리를 시행한다.
 - 셋째는 CFW 숍마다 환자의 기록과 필수 건강통계, 재무기록 통계를 갖춘 관리시스템이다.
 - 넷째는 CFW 숍마다 브랜드 스탠다드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한다.



3-5. 결과

- ▶ 프로젝트의 주요 산출은 CFW 숍과 진료소의 확대 그리고 환자과 고객의 증가에 있다고 볼 수 있다. 2000년 이래 CFW 네트워크는 17개의 약국과 48개의 진료소를 갖추며 네 배 이상 증가되었다. 매달 평균 4만 명의 고객에게 약조제와 진단 등 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2000년 설립 이후 케냐에서 만 약 500만 명의 환자와 고객들에게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였고, 2014년 한해에만 50만명에 달하는 환자, 고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 ▶ 2006년까지 보건직 소유의 40개와 간호사 소유의 26개 진료소를 합쳐 66개가 개설, 운영되었다. 이들은 연간 47만명의 환자들에게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2년까지 케냐 전체의 네트워크에서 250만명의 환자들에게 보건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014년 현재의 통계를 보면, 64개의 약국과 보건소가 운영되며, 연간 50만 1,595명의 환자와 고객을 상대하였다.69) 숍과 보건소 방문객이 절반 가량되고, 다른 절반은 현장방문 서비스 활동으로 이뤄졌다. 질병별로는 호흡기 질병이 4만건으로 가장 많고, 말라리아 치료와 모기장 판매가 3만4천건, 해충과 구충 2만3천건, 설사와 구토 6천건 등이다
- ▶ 이제 연간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네트워크 증대를 계획중이며, 새로운 혁신으로는 지금의 하향식, 투입 기반(top-down and input-based)의 그란트 제공 방식에서 프랜차이즈 차원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은 환자의 상향식, 산출 기반(bottom-up and output-based)의 보조금 지원으로 제3자 지불 방식을 통합하는 혁신을 추진중이다.



4. CommCare 보건의료 모바일 플랫폼



4-1. 현황

▶ 개요

국가	인도
분야	IT 보건
대상층	BOP
재정지원	USAID DIV 투자
홈페이지	https://www.dimagi.com/products/

4-2. 목적

사회적 목적	경제적 목적
고객 참여 개선 진료 품질 및 책임 개선	진료 액세스 개선 프로그램에 혁신적인 방안을 제시

4-3. 주요 사업

- ▶ CommCare는 데이터 수집, 클라이언트 관리, 의사 결정 지원 및 행동 변경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설계된 오픈 소스 모바일 플랫폼입니다. 모바일 응용 프로그램은 방문객을 대상으로 데이터 수집 및 교육 도구로 클라이언트 측 지역 사회 보건 종사자가 사용하며 선택적 오디오, 이미지 및 비디오 프롬프트를 포함합니다. CommCare 응용 프로그램은 OpenRosa 표준 도구 및 프로토콜을 기반으로하며 다양한 오픈 소스 기술을 활용합니다. 프로토콜은 XForms 를 사용하여 중첩되고 반복 가능한 요소, 의사



결정 지원, 고급 유효성 검사 및 광범위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컨트롤을 지원하는 고급 양식에 대한 W3C 지원 표준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표현됩니다.

- ▶ Dimagi는 국내외의 저소득층 인구에 대한 정보 및 통신 기술 플랫폼 및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연구에 참여 했습니다. Dimagi는 연구 기관, 비영리 단체, 정부 및 학술 기관과 파트너 관계를 맺어 제품 및 플랫폼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여 동료 간행물을 발행했습니다.

4-4. 추진체계

- ▶ 2010년 USAID의 DIV 이니셔티브 시행 첫 해에 제1단계 CommCare 펀딩(그란트)을 제공받았다. 제1단계의 성공으로 Dimagi는 2015년 제2단계 사업 확장을 위한 자본금 1백만 달러를 USAID의 DIV 그란트 지원을 받았다.
- ▶ CommCare는 고객들에게 모바일 폰 앱과 웹 인터페이스(mobile phone app and web interface)를 제공하는데, 주요 고객들은 공공보건기관뿐 아니라 NGO, 연구기관과 정부기관 등을 망라한다. 플랫폼은 고객인 기관들의 욕구에 맞춘 맞춤형으로 동시에 복수의 지역 언어들과 방언의 번역 서비스도 제공한다.
- ▶ CommCare 앱으로 보건 프로그램들이 환자의 정보를 저장, 접근해서 리스크에 처한 환자들의 사례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준다. 보건요원들이 저소득층의 사망률과 질병을 감소시키는 처방으로 입증된 건강한 행태들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체크리스트와 교육 해답집을 제공해준다.

4-5. 결과

- ▶ Dimagi의 제1단계 자료에 따르면 지역사회 보건요원들이 사용하는 연간 CommCare 소유권 비용은 86달러에 불과해, 이 비용은 정부, 외부 지원기관, NGO 등이 공동 부담한다. 그런데 이와는 별도로 인도 정부의 보건요원 일인당 관리 비용만도 연간 1천 달러로 매우 많은 비용부담을 한다.
- ▶ 비즈니스 시행 1년이 지난 2015년, 임팩트를 측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1단계의 성공으로 Dimagi는 제2단계 사업 확장을 위한 자본금 1백만 달러를 USAID의 DIV 그란트 지원을 받았다. 제2단계 프로그램은 1단계의 프로그램과 같은 방식으로 이제 40개의 조직들로 확장해, 각기 10대의 무상 전화를 보급하고 기술지원도 이뤄진다. Dimagi의 CEO Jonathan Jackson은 “제2단계 펀딩으로 증거 기반을 개발해, 현장 팀을 늘리고 인도의 협력기관들과 규모를 확장시키기 위한 핵심 기능성 구축을 하게 될 것이다”고 설명한다.



5. COMACO 보존농업 협동조합



5-1. 현황

▶ 개요

국가	잠비아
분야	농업
대상층	BOP 농민
재정지원	WSC 그란트
홈페이지	http://www.comacolb.com/

5-2. 목적

사회적 목적	경제적 목적
약자 포용 - 일자리	창업과 일자리 증대
역량 강화 - 교육	수익과 소득 증대
민주주의 - 거버넌스	자원 개발
서비스 제공 - 식량안보	서비스 개선

5-3. 주요 사업

- ▶ 보전을 위한 지역시장(Community Markets for Conservation : COMACO)은 소득 창출, 생다양성 보전, 식량안보를 증진시키는 목적을 가진 사회적기업이다. 법적으로 등록된 유한회사(limited-by-guarantee company)로, 농식품 프로세싱 회사이자 식품 거래업자로 활동한다. COMACO는 잠비아의 루앙와 벨리(Luangwa Valley)에 거주하



는 4만여명의 농가들을 조직의 회원으로 참여시켜 ‘보존 농사’(conservation farming)를 통해 농산물 수확을 늘려 소득을 증대시켜 빈곤을 감소하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5-4. 추진체계

- ▶ Wildlife Conservation Society가 프로젝트 초기단계부터 기술지원과 재정지원 등 다양한 공조자 역할을 했다. 재정지원자들은 복합적이다. WCS의 노력으로 노르웨이 대사관을 비롯해, Howard Buffett 재단, Mulago 재단, Lundin 재단, CARE International, General Mills, William Lloyd, and Harvey and Heidi Bookman, USAID, Cornell University의 Atkinson Center for a Sustainable Future, Cornell Center for Wildlife Conservation 등이다.

- ▶ Luangwa Valley는 “생태적 부와 경제적 빈곤”이 상존하는 관광지역이다. 연간 2만명의 관광객이 남측과 북측의 국립공원을 찾아, 연간 1,500만 달러의 관광수입이 창출되고 있다. 그런데 가게의 수입은 연간 100달러 미만으로, 많은 주민들이 만성적 식량 부족으로 빈곤에 직면해 있다. 주민들에게는 농사가 주된 생계 활동이지만, 농작물 저생산성과 산림파괴라는 심각한 지역사회 문제에 직면해 있다. 이상과 같은 악순환의 문제는 2003년 Wildlife Conservation Society (WCS)가 조사한 결과로 제시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낮은 가게 수입과 광범위한 식량 불안은 높은 수준의 밀렵과 야생동물 포획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WCS는 지역 농민들을 위한 생산자 그룹 모델을 제시해 지속가능한 농업 방안을 진흥하는 시장 인센티브 처방을 제시하였다. 그 후 COMACO의 현장 지도 요원들이 4만여 농민들을 대상으로 보전 농사법을 지도하며 산림 제거의 문제해결에 대한 대안을 찾게 되었다.

5-5. 결과

- ▶ 밀렵꾼들을 농민으로 전환시키는 혁신적인 프로그램 덕분에 야생자원의 보전과 함께 농민들의 보전 농사법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이중의 사회적경제 접근법이 성공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WCS에 따르면, 4만여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6만1천개의 야생 올가미와 1,347정의 총을 포기했다.

- ▶ COMACO는 계곡의 농가의 사회적, 경제적 복지에 상당한 임팩트를 발생시켰다. 농가들이 COMACO에 판매한 농산품으로 경험적 성과가 측정되며 또한 농업 기술 실천 개선으로 얻어지는 농가의 식량안보 개선 성과라고 요약할 수 있다.

- ▶ COMACO 가입 이전 2000년의 농가 생계조사에 따르면 농가 소득은 연간 79 달러,



그리고 우수량에 따라 60% 이상의 농가는 식량 안보를 갖추지 못해 야생동물을 포획해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였다. 그런데 COMACO 시행 이후 회원으로 참여한 전형적인 농민은 보전 농사(conservation farming) 덕분에 식량 안보를 충분히 갖추게 되었다. 지금은 연간 220달러 소득을 올리고 있다. 소득과 식량 생산 증대를 합한 가치는 연간 300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등록된 농민의 52%가 여성이며 매년 COMACO에 잉여 농산물을 판매하는 농민은 1만명에 달하는데, 이중 90%가 COMACO 등록 농민들이다. 2010년 COMACO 회원의 농산물을 판매한 농민 가운데 30%가 COMACO 회원 농민들인데, 이는 여전히 70% 대다수가 농산물 생필품 부족에서 초과로 이동하는 중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농산물 판매 수입이 늘어난 한 요인은 COMACO가 설치한 수집소를 통해 일괄 수집, 구매하는 덕분이다. 57개 지역에 분산 설치된 수집소에서 농산물을 수집해 중앙으로 운송하므로 농민들이 농산물을 직접 시장에 나가 판매하는데 드는 거래비용이 크게 감소한다. 운송비용만 농산물 가격의 20% 가량이 든다고 추산한다.

▶ 가격 인센티브와 배당금도 농민들이 COMACO가 추천하는 농산물을 재배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추천한 농산물은 농업기술로 품종 개량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농산물 다양화로 식량안보와 소득 증대를 꾀할 수 있는 전략 산물이다. COMACO 농민들은 50 평방 미터 규모의 농지에 쌀 농사를 해서 이전의 소득에 비해 세배 이상의 가격 상승을 올릴 수 있었다. 같은 규모의 땅콩 농사는 270%, 콩 농사는 180% 가격 상승이 발생했다. 품종의 다양화 정책으로 쌀 생산은 300% 증가하면서, 그간 쌀 농사를 하는 농민의 수가 다섯 배가 늘었다. 그밖에 카사바 농사를 하는 농민의 수는 열 배가 늘었다. 이처럼 농산물의 다양화로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농산물의 수가 10개에서 16개로 늘면서 식량안보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강해졌다. 2007년에는 홍수 피해가 발생하면서 홍수와 가뭄에 강한 카사바와 고구마 농사가 추가로 늘어, 다양화가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한 전략이 되었다. 다양한 시장, 비시장 인센티브도 활용되었다. 2010년 27,000 등록 농민들에게 ID 카드가 발급되어 보전 농사 기술을 준수한 농민들에게 약간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었다. 또 보전 농사법을 준수해농산물을 판매한 좋은 기록을 가진 농가의 자녀들의 학비를 보조해주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 지역사회 기반의 현장방문 체계로 225개의 시범 훈련소 등의 지원으로 농민들은 다양한 농사 기술을 습득한다. 또 유기농 비료의 사용도 일반화되어있다. 17,376명의 농민 샘플 중에서 보전 농사법을 활용해 집에서 자연 퇴비를 만들어 사용한 농민들이 81.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전 농사법을 사용한 농지의 수확량의 증가는 일반 농지에 비해 30%-200%에 달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보전 농사법으로 값비싼 화학비료, 살충제, 제초제등의 사용이 크게 줄면서, 가계의 연간 소득의 10-20%가 절약된 것으로 나타난다.



6. Divine Chocolate의 Kuapa KoKoo 농민협동조합



6-1. 현황

▶ 개요

국가	가나
분야	농업 상업
대상층	BOP 여성
재정지원	Divine Chocolate
홈페이지	http://www.divinechocolate.com/uk/about-us/research-resources/divine-story/kuapa-kokoo

6-2. 목적

사회적 목적	경제적 목적
생산자와 소비자의 역량을 강화	무역관계 창출 농민 소유의 글로벌 초코렛 회사로 성장

6-3. 주요 사업

▶ Divine Chocolate은 사회적기업의 미션을 “사회적 미션에 의해 움직이는 기업”이라고 밝힌다. Divine Chocolate는 1998년 설립 당시 99개 주식이 세 주주들에 의해 소유되었다. 공정무역 NGO인 Twin Trading 52%, Kuapa KoKoo 농민협동조합 33%,



그리고 국제 도매상 Body Shop International이 14%을 배분하였다. 그러다 2006년에 Body Shop은 사회기업가정신에 따라, 주식을 Kuapa Kokoo 조합에 양도하였고, 또 같은 해 국제개발금융사인 Oikocredit이 주식을 구매해 이를 Kuapa Kokoo 조합에 양도하면서 조합이 44%의 대주주가 되었다.

6-4. 추진체계

- ▶ Kuapa Kokoo는 공정무역 회사인 Twin Trading의 도움을 받아 협동조합으로 설립되며, Divine Chocolate의 주식 44%를 소유하는 대주주로 코코아 판매수익과 주식배당금 등을 안정적으로 운영 자본으로 확보해, 농민 기술교육과 생산성 향상에 지속적으로 투자한다.
- ▶ Divine이 초기 발전 단계에서 도약할 수 있었던 계기는 영국의 초콜릿대기업인 Cadbury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었다. Cadbury가 전통적인 자사의 브랜드를 공정무역으로 전환시키는 결정을 하고 Divine은 주류 브랜드에 주요 공급원이 되었다. 이후 초콜릿 시장에서는 Nestle와 Mars 또한 코트디부아르에서 공정 무역 코코아를 구매하며 공정 무역 대열에 합류하였다. In 2013 영국에서 판매된 초콜릿의 11%가 공정 무역 제품으로 상당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6-5. 결과

- ▶ Divine Chocolate은 농민들이 소유하는 사회적기업이라는데 우선적인 개발협력의 성과가 있다. 실제로 농민들은 이중의 수익을 보장받는다. 먼저 농민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코코아 가격을 정당하게 받아 수익을 올리게 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들이 소유한 주식의 배당금을 분배받아 수익을 올린다. 이 같은 수익을 올리게 된 기초는 협동조합이다.
- ▶ KuapaKokoo 협동조합은 이들에게 “민주주의, 책무성, 투명성”을 의미하며, 조합원인 농민들에게 협동조합은 “nnoboa”, 함께 일하는 이익을 의미한다양화가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한 전략이 되었다. 다양한 시장, 비시장 인센티브도 활용되었다. 2010년 27,000 등록 농민들에게 ID 카드가 발급되어 보전 농사 기술을 준수한 농민들에게 약간 높은 가격으로 구입하는 인센티브 제도가 시행되었다. 또 보전 농사법을 준수해 농산물을 판매한 좋은 기록을 가진 농가의 자녀들의 학비를 보조해주는 방안도 모색 중이다.
- ▶ 지역사회 기반의 현장방문 체계로 225개의 시범 훈련소 등의 지원으로 농민들은 다양한 농사 기술을 습득한다. 또 유기농 비료의 사용도 일반화 되어있다. 17,376명의



농민 샘플 중에서 보전 농사법을 활용해 집에서 자연 퇴비를 만들어 사용한 농민들이 81.7%에 달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보전 농사법을 사용한 농지의 수확량의 증가는 일반 농지에 비해 30%-200%에 달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였다. 보전 농사법으로 값비싼 화학비료, 살충제, 제초제등의 사용이 크게 줄면서, 가계의 연간 소득의 10-20%가 절약된 것으로 나타난다.



7. EPSSF 소작농 협동조합



7-1. 현황

▶ 개요

국가	이디오피아
분야	농업
대상층	BOP여성
재정지원	CIDA 그란드
홈페이지	

7-2. 목적

사회적 목적	경제적 목적
가난한 농민 포용 협동조합 역량 강화 빈곤 퇴치	민간자본 투자 진흥 수익과 소득 증대 수입 다양화

7-3. 주요 사업

▶ EPSSF 프로젝트는 이디오피아 소농민들의 지속가능한 농업 기술훈련과 협동조합의



역량강화로 농민의 소득을 증대시켜 빈곤감소에 기여하는 사회적 목적을 갖고 있다. 빈곤 감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농업경제적 실행방안을 추진한다.

7-4. 추진체계

▶ 이디오피아 농업부문 개발(Development of the Agricultural Sector of Ethiopia)의 EPSSF 프로젝트는 정부, 개발기관, 민간기관들의 파트너십 프로젝트이다. “소농민 지원을 위한 민간부문의 참여” 프로그램은 2013-16 기간에 진행되는데, 캐나다 외부부(DFATD)의 펀드(300만 달러) 재정지원으로 ATA(Agricultural Transformation Agency)가 시행기관의 역할을 맡는다.

▶ 프로젝트 협력기관은 아래와 같이 산출 목표에 따라 역할을 분담한다.

- 캐나다 외부통상개발부(DFATD)은 재정지원기관,
- 농업전환기관(ATA)은 시행기관,
- Technoserve (TNS) 산출 #7을 위한 시행 보조기관으로, 협동조합

▶ 마케팅과 비즈니스 자문,

- 캐나다 협동조합협회 (CCA). 산출 #6의 위탁 기반의 협동조합 산출

▶ 마케팅을 위한 시행 보조기관,

- McKinsey and Co 산출 #5 대규모 소상을 위한 플랫폼을 위한 시행보조기관
- ACDI- VOCA : 산출 #4 지역사회 창고 영수증 개념을 위한 시행 보조기관
- DevResults : 산출 #1 현장 서비스와 조정의 웹 개발을 위한 시행 보조기관.

7-5. 결과

▶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s) 관리 체계를 구축해 잘 운영되고 있다. 조직에는 관리책임자, 국제자문관, 선임 기술전문가, 분석가와 프로그램 보조자 등이다. 관리팀은 투자관리에 대한 균형된 접근법을 도입해, 실제 투자자를 파악해 조정하는 역할과 핵심 시스템 이슈들을 파악해 해결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 관리팀은 독일, UAE, 우간다, 미국 등지의 주요 행사에 참석해 이디오피아 농업에 대한 투자 기회의 관심을 진흥시키는 역할도 했다. 이에 따라 관심을 표명한 기업들이 정보 접근이나 전문가 집단과 핵심 정부관리들의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의사를 밝혔다. 관리팀은 시스템 차원에서 전략개발,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투자자의 일차적인 방문기관이 되는 이디오피아 투자기관(Ethiopian Investment Agency : EIA)을 지원하였다.



- ▶ PPP Team은 실제적인 고가치의 농업 투자 기회 파악을 완성하였다. 옥수수 가치사슬 분석으로 투자자 유치에 활용되는 금융시장 기회를 가진 완전한 비즈니스 사례로 진전시켰고, 초기 사정으로 tef 와 밀 가치사슬을 비즈니스 사례로 진전시켰다. 또 국내에서는 리스크가 적은 밀가루에 대한 단기 투자 기회와 다른 품목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장기 투자 기회를 파악하였다. PPP 팀의 연구는 시장 사정, 규제 사정, 투자 사례 개발, 이디오피아 경쟁적 우위 분석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 ▶ 각 지역의 투입 크레딧 체계 디자인인 완료되었고 국가 차원의 보증 펀드를 설치하는 이니셔티브는 농업부가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농촌금융전략(Rural Finance Strategy)으로 진전되었다.
- ▶ 지역사회 창고 프로젝트와 모바일 저장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유니온들은 관리 체계와 역량 개선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였다. 유니온, 협동조합 대표 등 70명이 훈련에 참여했다. 2014년 3/4분기말에 4개의 파이롯트 협동조합들이 농민들로부터 수집한 밀 259qt 중 150qt는 중앙 저장고로 보내져 보관중이다. 모바일 창고는 10개의 유니언이 선정되어 로지스틱스 계획을 수립되고 장비가 갖춰졌다.
- ▶ SHF/협동조합과 상업적 구매자 사이에 대규모 소싱의 위한 계약플랫폼이 개발되어, 이해관계자 상담이 이뤄졌다.
- ▶ 캐나다 협동조합협회(CCA)는 연방과 지역의 협동조합 기관들과 토의를 거쳐 일부 유니온 중심으로 위탁 기반의 산출 마케팅(commission-based output marketing)의 시행을 합의해 시행에 들어갔다. 협동조합들은 파이롯트로 참여한다. CCA의 컨설턴트들은 국제적 모범사례들을 정리해 ATA에 보고서를 보내 참고하도록 하였다. 보고서의 초안에 위탁기반의 산출 마케팅이 제시되었다. 4개 지역의 10명의 대표자, ATA 등은 일주일간 우간다와 케냐에 모범사례 조사를 떠나 학습해 이디오피아 시행을 확신할 수 있었다.
- ▶ Technoserve는 11개의 EGTE에서의 관리 인터뷰와 현장 관찰을 통해 EGTE를 통한 밀의 저조한 산출량을 발견해 마케팅 시즌이 지나기전에 더 많은 양의 밀을 수집해 판매할 것을 건의하였다. Technoserve의 밀 유니온과 마케팅 센터의 사정 결과보고서는 EGTE가 구매 타겟을 충족할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며, 가격조정과 구매 촉진을 위해 EGTE와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



※참고문헌

- 김태근 (2013). 사회적기업의 이론적 실천적다양성 연구.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 2 (2), 23-49
- 박대호 (2013). 충북의 사회적경제 현황과 과제. 「사회적기업과 정책연구」, 3(1), 47-72.
- 이은선, 석호원 (2017). 국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7(4), 179-213.
- KOICA, 「국제개발협력용어집」
- KOICA, 「세계시민 첫걸음 필독서 국제개발협력 입문 개정증보판」
- Aliet Green 유기농 사회적 기업, <https://aliet.green/>
- AllLife 취약층 생명보험, <https://alllife.co.za>
- Children and Family wellness 약국 프랜차이즈, <http://www.cfwshops.org/>
- COMACO Official Website, <http://www.comacolb.com/>
- Dimagi Official Website, <https://www.dimagi.com/products/>
- Kuapa KoKoo Coop of Divine Chocolate, <http://www.divinechocolate.com/uk/about-us/research-resources/divine-story/kuapa-kokoo>
- Rz MANNA 페이스북, <https://ko-kr.facebook.com/bakeryrzmanna>
- RzMANNA Official Website, <http://www.rzmanna.com>
-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 단동 광명촌 카페, http://cafe503.daum.net/_c21_/home?gclid=16ihE
- 가나안농군운동세계본부 블로그, <https://m.blog.naver.com/PostList.nhn?blogId=wcanaan>
- 경희대학교 국제개발협력연구센터, <http://cidec.khu.kr/contents/projects.htm>
- 굿네이버스 네팔 H Plant, <http://hiumherb.com/kor/h-plant/>
- 굿네이버스 몽골, <http://goodneighbors.org.mn/>
- 굿네이버스 타자키스탄, <http://tajikistan.goodneighbors.kr/>
- 다일 복지재단, <http://www.dail.org/>
- 사단법인 캠프, <http://icamp.asia/>
- 성공회대학교, <http://www.seacenternepal.com/index.php>
- 아름다운커피, <http://www.beautifulcoffee.org/>
- 아시아위민브릿지두런두런, <http://dorundorun.org/>
- 열매나눔인터내셔널, <http://www.myi.or.kr/>
- 월드투게더 코리아, <http://www.worldtogether.or.kr/ko/>
- 지구촌나눔운동, <http://www.gcs.or.kr/gcs/mobile/index.asp>
- 포스코 Kpse-si, <http://www.kpse-si.com/>
- 포스코파운데이션, <http://www.poscofoundation.org/>
- 한국헬프페이지 미얀마, <http://www.helpage.or.kr/>

사회과학연구소

* 본 저서는 2015년 정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발간되었음
(NRF-2015S1A5B8046954)

발행인	최영출
편집인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발행처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발행일	2018년 4월 30일
주소	28644 충북 청주시 서원구 충대로 1 N15-232 사회과학연구소
홈페이지	http://www.ssri21.or.kr
전화	043-261-2221
팩스	043-275-1343

(非 賣 品)